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崔 智 娜

에어브러시(AIR BRUSH)를 이용한 바디페인팅(BODY PAINTING)의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Body Painting Using an Air Brush

2003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 션 藝 術 學 科
扮 裝 藝 術 學 專 攻
李 裁 衡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崔 智 娜

에어브러시(AIR BRUSH)를 이용한 바디페인팅(BODY PAINTING)의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Body Painting Using an Air Brush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 션 藝 術 學 科

扮 裝 藝 術 學 專 攻

李 裁 衡

李裁衡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3年 12月

審査 委員長_____印

審 査 委 員_____印

審 査 委 員_____印

국문초록

인간은 자신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로인해 외부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표면인 피부에 특별한 중요성을 두게 되었고, 모든 인종의 사람들은 피부를 예술적 표현을 위한 표면으로 사용하고 광범위한 영역의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장식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려 한다.

그 표현의 한 형태인 바디페인팅은 인간의 내적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인 문화의식과 창조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바디페인팅은 수천 년 동안 한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표현하기위해 사용되어져 왔다. 인체를 장식하고 페인팅 하는 것은 뉴질랜드나 호주, 미국 등의 선사시대의 부족들이나 원주민들과 같은 전통적인 집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의식적인 행사에서 인체의 부분을 강조하고 장식하기위해 이런 테크닉들을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의 바디 페인팅은 의식의 상징과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오히려 바디 랭귀지와 인상적인 컬러를 강조하기 위해, 인체에 모양과 컬러들을 재미있고 창조적으로 만드는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체가 가지는 외형은 우리가 작업하게 될 표면이고, 최종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모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 지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체는 2차원적인 표면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체의 모양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디페인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얼굴 표정과 미묘한 움직임, 몸의 자세의 변화에 따라 각각 고유한 나

름대로의 의미를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신체 언어를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장식하는 것은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각기 다른 요소들 즉 컬러, 선, 모양, 자세, 표현력, 조명 등을 서로 조화시키는 일은 창조력에 수많은 가능성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바디페인팅은 머리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인체전반에 행해지는 종합예술로 어느 예술작품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표현하는 조형예술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개성에 따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예술분야이다.

이런 예술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일종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즉, 바디페인팅은 인간이 순수한 손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입체적인 조형예술로 다양한 표현기법이 있다.

에어브러시 이미지는 페인팅만큼이나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에서 입으로 불어서 쓰는 도구를 이용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 그림을 찾아 볼 수 있다. 에어브러시는 피부 표면에 작업할 때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던 워터 컬러 페인터 찰스 버딕(Charles Burdick)에 의해 1893년에 발명되었다. 그리고 금세기 초에 사진작업을 하면서 그 테크닉이 더욱 발전하였다. 그 후에 에어브러시는 팝아트, 초현실주의, 포토 리얼리즘, 하이퍼 리얼리즘 등의 분야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에어브러시는 다양한 소재의 표면들에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주 쓰이는 테크닉 중의 하나이다. 에어브러시 메이크업 도구들은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어떤 테크닉보다 간단하게 점진적인 색

채 변화를 표현하거나 서로 다른 재료 위에 힘들이지 않고 물감을 분사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형예술분야에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바디페인팅의 기원과 시대별 유형, 다양한 표현기법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어브러시의 발전과정과 에어브러시 기구의 사용방법 및 표현기법을 연구하여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다양한 바디페인팅의 표현에 대해 연구하고 작품으로 전개시킴으로서 바디페인팅 작업에 있어서 에어브러시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표현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문적인 에어브러시 도구들을 이용해 작업했지만, 사전작업이나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종종 다른 메이크업 테크닉들을 병행해 쓰기도 하였다.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인 메이크업 테크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에어브러시에 자신이 익숙해진 이후에는 다른 어떤 도구들보다 에어브러시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즉, 바디페인팅의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표현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보다 많은 표현의 자유를 줄 것이다.

목 차

국문초록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Ⅱ. 바디페인팅의 이론적 고찰 ····· 5

1. 바디페인팅의 개념 ····· 5

2. 바디페인팅의 기원 ····· 7

3. 바디페인팅의 시대별 유형 ····· 9

4. 바디페인팅의 표현기법 ····· 17

Ⅲ. 에어브러시의 이해 ····· 28

1. 에어브러시의 개념 ····· 28

2. 에어브러시표현의 발전과정 ····· 30

3. 에어브러시 원리와 이용 범위 ····· 35

4. 에어브러시의 기구 ····· 39

Ⅳ.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 표현연구 ····· 46

1. 에어브러시의 표현 효과 ····· 46

2. 에어브러시의 기초 표현 ····· 50

3. 에어브러시의 응용 표현 ····· 55

Ⅴ.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의 작품제작 ····· 65

1. 작품제작의도와 방법 ····· 65

2.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의 표현 ····· 67

Ⅴ. 결 론 ····· 76

참 고 문 헌 ····· 79

ABSTRACT ····· 81

그림 목차

<그림 1> 사하라 동굴 벽화 ····· 8
<그림 2> 사하라 동굴 벽화 ····· 8
<그림 3> 현대의 바디페인팅 ····· 14
<그림 4> 현대의 바디페인팅 ····· 14
<그림 5> 광주 비엔날레 작품 ····· 16
<그림 6> 하이 서울 페스티벌 작품 ····· 16
<그림 7> 고양시 꽃 박람회 작품 ····· 16
<그림 8> 기업 홍보 바디페인팅 ····· 16
<그림 9> 회화적 표현기법 ····· 18
<그림 10> 회화적 표현기법 ····· 18
<그림 11> 회화적 표현기법 ····· 19
<그림 12> 회화적 표현기법 ····· 19
<그림 13> 회화적 표현기법 ····· 19
<그림 14> 회화적 표현기법 ····· 19
<그림 15> 그래픽적인 표현기법 ····· 20
<그림 16> 그래픽적인 표현기법 ····· 20
<그림 17> 그래픽적인 표현기법 ····· 21
<그림 18> 그래픽적인 표현기법 ····· 21
<그림 19> 그래픽적인 표현기법 ····· 21
<그림 20> 그래픽적인 표현기법 ····· 21

<그림 21> UV 표현기법 ····· 23
<그림 22> UV 표현기법 ····· 23
<그림 23> UV 표현기법 ····· 23
<그림 24> UV 표현기법 ····· 23
<그림 25> 에어브러시 표현기법 ····· 24
<그림 26> 에어브러시 표현기법 ····· 24
<그림 27> 에어브러시 표현기법 ····· 25
<그림 28> 에어브러시 표현기법 ····· 25
<그림 29> 에어브러시 표현기법 ····· 25
<그림 30> 에어브러시 표현기법 ····· 25
<그림 31> 질감 표현기법 ····· 26
<그림 32> 질감 표현기법 ····· 27
<그림 33> 질감 표현기법 ····· 27
<그림 34> 질감 표현기법 ····· 27
<그림 35> 질감 표현기법 ····· 27
<그림 36> 파쉐의 에어일레이져 ····· 34
<그림 37> 파쉐의 터보 AB형 에어브러시 ····· 34
<그림 38> 에어로 그래프 "AE" ····· 34
<그림 39> 초기의 에어브러시 ····· 34
<그림 40> 에어브러시의 원리 ····· 36
<그림 41> 에어브러시 건 ····· 40
<그림 42> 에어브러시 건 ····· 40
<그림 43> 에어브러시 건의 단면도 ····· 41

<그림 44> 에어 건을 바로 쥐는 법 ····· 43
<그림 45> 콤프레셔 ····· 44
<그림 46> 에어브러시 홀더 ····· 45
<그림 47> 압력조절 에어휠터 ····· 45
<그림 48> 에어브러시 거리와 농도 ····· 47
<그림 49> 화면거리와 조작의 강약 ····· 48
<그림 50> 점, 선의 표현과 거리의 관계 ····· 49
<그림 51> 에어브러시 선의 강약 ····· 50
<그림 52> 에어브러시의 여러 가지 선 ····· 51
<그림 53> 선을 이용한 표현 ····· 51
<그림 54> 선을 이용한 표현 ····· 51
<그림 55> 면의 올바른 분무방법 ····· 53
<그림 56> 면을 이용한 표현 ····· 53
<그림 57> 면을 이용한 표현 ····· 53
<그림 58> 그라데이션 ····· 54
<그림 59> 그라데이션 표현 ····· 54
<그림 60> 그라데이션 표현 ····· 54
<그림 61> 띠운 스텐실의 예 ····· 57
<그림 62> 작은 원 ····· 58
<그림 63> 중심이 밝은 원 ····· 58
<그림 64> 원 표현 ····· 58
<그림 65> 원이나 곡선 표현을 위한 도구 ····· 58
<그림 66> 문자 스텐실 ····· 59

<그림 67> 스텐실 표현 ····· 59
<그림 68> 스텐실 표현 ····· 59
<그림 69> 스텐실 표현 ····· 59
<그림 70> 문자 그라데이션 ····· 60
<그림 71> 문양 그라데이션 ····· 60
<그림 72> 문양 그라데이션 ····· 60
<그림 73> 속도감 주기 ····· 61
<그림 74> 속도감 주기 ····· 61
<그림 75> 스텐실 반복효과 ····· 61
<그림 76> 스텐실 반복효과 ····· 61
<그림 77> 결 무늬 만들기 ····· 62
<그림 78> 철망 결 무늬 만들기 ····· 62
<그림 79> 어망 결 무늬 만들기 ····· 62
<그림 80> 자유로운 브러싱 ····· 64
<그림 81> 자유로운 브러싱 ····· 64
<그림 82> 거미줄 얼룩효과 ····· 64
<그림 83> 거미줄 얼룩효과 ····· 64

표 목 차

<표 1> 바디페인팅의 기원설 ····· 8

작품 목차

<작품 Ⅰ> 자연의 이미지를 꽃과 물방울로 표현한 작품 ····· 68
<작품 Ⅱ> 우주의 이미지를 환상적으로 표현한 작품 ····· 70
<작품 Ⅲ> 차가운 얼음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 ····· 72
<작품 Ⅳ> 결 무늬를 이용해 표현한 작품 ····· 74
<작품 Ⅴ> 명암을 이용하여 근육을 강조한 작품 ····· 75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바디페인팅은 머리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인체전반에 행해지는 조형예술로 어느 예술작품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표현하는 예술로 인간의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이며 나아가 아티스트의 개성에 따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예술분야이다.

이런 예술작품 즉, 바디페인팅을 제작하는데 있어 다양한 주제와 기법을 독특한 연출을 통하여 다른 문화 예술분야와 접목시키거나 그 작품자체로도 훌륭한 작품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표현의 다양함과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종의 테크닉이 필요하며, 이 테크닉에는 선(線), 면, 음영(陰影)의 교차, 색채, 배경 등 시각적 사고(思考) 에 나름대로의 특이한 언어(言語)를 부여해 주는 물리적 요인(物理的 要因)들이 포함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캔버스에 그리는 평면적인 그림과는 달리 선과 면, 골격 등으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인체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체의 해부학적 측면이나 골격구조, 피부의 특성 등을 먼저 파악한 뒤 입체적인 형태와 구조에 따라 디자인을 하고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 아티스트의 작품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디페인팅은 인간이 순수한 손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입체적인 조형예술로 다양한 표현기법이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표현 재료들이 잇달아 우

리 앞에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는 전혀 사용법도 모르는 것도 있고 왜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도 있다. 실제로는 표현 재료의 새로운 것만으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표현기술 즉, 테크닉이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면 누구든지 나름대로의 독특한 테크닉을 가지며, 이 테크닉에는 육체적 노력이 포함되어 창조될 때의 목적에 따라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가진 도구(道具)가 사용되어 진다. 본래의 표면을 변화 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일대의 혁신을 가져온 도구의 하나가 에어브러시(Airbrush)이다. 이 에어브러시 이미지는 페인팅만큼이나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에서 입으로 불어서 쓰는 도구를 이용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 그림을 찾아 볼 수 있다.

에어브러시는 표면에 작업할 때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던 워터 컬러 페인터 찰스 버딕(Charles Burdick)에 의해 1893년에 발명되었다. 그리고 금세기 초에 사진작업을 하면서 그 테크닉이 더욱 발전하였다. 그 후에 30년대 권위 있는 미술가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특히 현대 미술에 있어서 초현실주의자들의 작품에는 에어브러시를 사용하여 독특하게 그려진 것이 많으며 그 후 하이퍼 리얼리즘(Hyper-realism)도 비교적 새로운 도구인 에어브러시의 사용을 확대 하였고, 붓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초정밀(超精密)한 표현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따라서 재료, 기구와 표현효과는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새로운 표현기법을 창조할 수 있으며 제작 과정에 있어서의 세밀한 관심과 창의력으로 경험을 통한 재료와 도구의 개발 및 실험과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에어브러시는 다양한 소재의 표면들에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자주 쓰이는 테크닉 중의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발전으로 인해 에어브러시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바디페인팅에서 에어브러시를 쓰는 것은 새로운 테크닉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많은 아티스트들은 테크닉 적으로 완성된 에어브러시 장비들의 실험을 거친 이후에 오히려 더 전통적인 메이크업 테크닉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에어브러시 메이크업의 구체적인 몇몇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능숙한 사용을 위해서는 메이크업에 관련된 적절한 도구와 방법의 선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형예술 분야에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바디페인팅의 다양한 예술적 표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중 바디페인팅의 한 표현기법인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제안하고 또한, 에어브러시의 발달과정과 에어브러시 기구 및 재료에 대한 설명과 사용방법에 대한 연구 및 그에 따른 응용 기법을 고찰해 봄으로서 어떻게 아티스트의 의도에 부합되는 표현효과를 창출(創出)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독창적인 표현기법에 관한 방향을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외 관련서적과 바디페인팅과 관련된 선행논문 및 문헌을 통해 바디페인팅의 개념과 기원, 시대별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바디페인팅의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여 근거를 재정립 하고 기존 아티스트들의 선행된 바디페인팅 작품사진 및 외국 바디페인팅 작품 자료를 수집하여 표현기법을 분석하였다.

둘째, 에어브러시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에어브러시의 원리와 이용범위를 분석해본다. 그리고 에어브러시 기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에어브러시 표현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된 사진자료를 수집, 참고하고 표현효과와 응용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의 다양한 표현기법과 응용기법을 제안해 봄으로써 어떻게 아티스트의 의도에 부합되는 표현효과를 창출(創出)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와 창조적인 표현기법에 관한 방향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다섯째,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을 실제 작품제작을 통하여 작품제작 의도와 방법을 검토하고 작품 5점을 제시 하였다. 주로 에어브러시 표현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종종 다른 테크닉들을 혼합해서 작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와 기법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에어브러시가 메이크업과 공연 메이크업의 측면에 많이 응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바디페인팅에 한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와 작품제작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결과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새로운 표현효과와 과제를 언급한다.

Ⅱ. 바디페인팅의 이론적 고찰

1. 바디페인팅의 개념

바디페인팅은 수천 년 동안 한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 그것이 바람직하든 세속적이든 깨끗하지 못하게 보이는 방법이든 간에 장식된 신체는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적 유산에 의존하고 있다. 바디페인팅은 이러한 유산이 계승되고 보존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인체를 장식하고 페인팅 하는 것은 뉴질랜드나 호주, 미국 등의 선사시대의 부족들이나 원주민들과 같은 전통적인 집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의식적인 행사에서 인체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 이런 테크닉들을 사용했으며, 치열한 생존경쟁시대에 주위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서 행해지게 되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사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에서 얻어지는 동물의 뼈나 이빨, 가죽, 조개껍질 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장식하고 풀이나 나무의 즙, 그리고 독특한 색상의 토양을 이용하여 신체에 여러 가지 문양을 그려 넣음으로서 다른 맹수에 비해 나약하기 그지없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의 바디 페인팅은 의식의 상징과는 관련이 없다. 현대에 있어서 바디페인팅이란 인체를 시각적으로 이미지화시켜 표현할 수 있는 재료와 인상적인 컬러로 강조하여 인체를 예술작품으로 재구성하여 재미있고 창조적으로 만드는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체가 가지는 외형은 우리가 작업하게 될 표면이고, 최종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모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 지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체는 2차원적인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일반적으로 화폭에 그리는 평면적인 작품과는 달리 입체적인 인체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체의 해부학적 측면과 피부의 특성까지도 파악한 후에 인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 창조적인 작품을 표현하는 것이 현대의 바디페인팅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바디페인팅은 얼굴 표정과 미묘한 움직임, 몸의 자세의 변화에 따라 각각 고유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신체 언어를 강조하는 다른 요소들 컬러, 선, 모양, 자세, 표현력, 조명 등을 서로 조화시키는 일은 창조력에 수많은 가능성을 부여한다.

즉, 바디페인팅은 인체의 아름다운 선과 면을 현대적 조형감각으로 표현, 신체에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예술적 이미지 표현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2. 바디페인팅의 기원

한 시대의 문화와 역사는 현존하는 것이지만 과거로부터 유래된 것처럼 바디페인팅의 역사 또한 원시 인류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형태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 하여 왔다. 인간이 언제부터 신체에 장식을 하였는지 밝히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고대 브리튼 사람들이 녹색으로 그들의 몸에 염색을 했다는 기록이나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BC 5000~1500년대의 사하라 동굴 벽화에서 발견된 페인팅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바디페인팅의 오랜 역사를 말해 준다.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을 통해 고대 인류가 어떠한 목적에서이든 태고 적부터 치장했다는 사실을 들어 바디페인팅의 기원을 인류의 생존과 같이 보고 있다.

인간은 그들 자신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로인해 외부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최후의 얇은 층인 피부에 특별한 중요성을 두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피부를 예술적 표현을 위한 표면으로 사용하고 광범위한 영역의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장식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려는 이유이다. 그 표현의 한 형태인 바디페인팅은 인간의 내적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사적인 자아의식과 창조성을 증명한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바디페인팅은 수천 년 동안 한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왔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든 세속적이든 깨끗하지 못하게 보이는 방법이든 간에 장식된 신체는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적 유산에 의존하고 있다. 바디페인팅은 이러한 유산이 계승되고 보존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문화적인 것과 그들 자신의 장식 개념과 비교하게 될 때 강하게 반응한다.[1)]

<표 1> 바디페인팅의 기원설

기원설의 종류	기원설의 내용
보호 및 위장에 관한 설	·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조건적인 반사능력 · 흙, 재, 돌가루, 자연염료 등으로 신체위장, 보호
장식에 관한 설	· 나체의 피부에 회화, 문신을 새겨 자신의 우월성 표시 · 정복자가 과시를 위한 형식으로 지금도 인디언, 아프리카 콩고의 마요고족들 사이에서 성행
신분표시에 관한 설	· 타인보다 나아 보이려는 우월의 욕구 · 변형, 색칠 등의 신체 장식으로 민족성, 계급, 종족표현
종교 및 주술에 관한 설	·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종교 · 병의 치료를 위한 주술적 행위 · 신령의 힘을 자신의 신체에 싣고자하는 욕망

<그림 1> 사하라 동굴 벽화 BC 5000~1500 (출처: Decorated Skin)

<그림 2> 사하라 동굴 벽화 BC 5000~1500 (출처: Decorated Skin)

1) 김영희 외 6인, 『토털메이크업』, 정문각, 2001, p135

3. 바디페인팅의 시대별 유형

1) 원시시대의 바디페인팅

우리는 원시인이 언제 색을 이용하기 시작해서 자신의 몸에 페인팅 함으로서 창조적 기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든 대륙의 사람들이 색을 마술에 유혹되어 자신 나름대로 변형시키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원시적인 본능을 따랐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동굴의 벽화와 같은 붉은 황토와 황토무덤 도구위에 놓여 있는 유골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페인팅 된 조각상은 구석기 시대 매장 터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런 매장의식은 바디페인팅이 생활사에서 이미 오래전에 확립된 풍습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색칠된 마스크나 신체예술의 변형효과는 일상생활에서 나온 애니미즘적인 종교의 무당을 없애고 그들의 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가 주고 초기 인간에 대한 새로움, 신비롭고 종교적인 경험의 길을 열어 주었다. 원시시대의 바디페인팅은 외모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든 다른 부족과의 구별을 위해서든 또 종교적 의식으로 사용되었든 간에 장식방법이 점점 더 기술적이고 세련되어졌다. 그것은 지금도 수천 개의 발달된 이 시대의 예술적 표현의 본보기들이며 전 세계의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2) 고대의 바디페인팅

이 시대의 바디페인팅은 다른 예술적 표현들이 우발적 동기에 의한 행위였던 것에 반해 종교나 사회적, 정치적 개념을 가진 특수한 목적을 가지

고 있다. 그것은 분리시켜 이해해서는 안 되며 타고난 '상상력의 세계' 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바디페인팅에 사용된 색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중심세계와 연관이 있다는 개념에서 나오며 신과 성직자들도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세계가 조직되고 표현된다고 생각하였다. 신을 묘사하거나 종교적 사고의 일관된 세계를 나타내는 색채는 시대를 반영했는데, 이는 인간이 신을 통해 파괴와 생산을 동시에 해내는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개념으로써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고대인들은 바디페인팅을 통해 현세와 내세가 서로 왕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현상(새, 동물, 돌, 하늘, 땅 기타)은 인간이 노력하여 얻어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열려있다고 믿었다. 춤, 노래, 육체적 장식과 색칠 하나가 곧 의학이며 수호, 영혼, 은총을 얻는 행위이자 믿음이다. 특히 사냥은 의학의 필수이며 성공의 여부도 거기에 달려있다. 동물의 부속물로 장식하고 동물의 특징을 흉내 내는 춤도 더 많은 수호영혼과 접촉하려는 노력이다. 그들은 바디페인팅이 그들을 성공한 사냥꾼으로 인식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바디페인팅은 믿을 수 없는 당당함과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다양한 형태를 혼합하며, 추상적 채색을 취하는 나체의 피부는 물질세계와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연합하는 힘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매개 처였다.

고대인들은 공동 캠프에서 특히 춤 의식을 행했는데 각 종족은 자신만의 춤과 노래 그리고 바디페인팅의 특징을 가지고 미(美)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고대인들의 모든 예술적 표현의 양식 중 바디페인팅을 정의

하기가 가장 힘이 든다. 거의 제한되어 있지 않은 고대인들의 바디페인팅의 다양함은 20세기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예술형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고대 바디페인팅은 다양한 서구문명의 사람들과 친밀해졌던 모든 예술 발달의 실제적인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2)]

3) 근대의 바디페인팅

근대에 있어 바디페인팅은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신분에는 나이를 구별하는 나이집단 표시와 부족을 구별하는 부족집단의 표시, 직업을 나타내는 지위의 표시 등 다양했다. 그것은 바디페인팅에 나타나는 색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선의 형태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바디페인팅에 나타나는 2개 이상의 색은 그 동기와 해석을 애매하게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의 다양한 암시와 깊은 의미를 준다.

많은 근대인들은 자신의 창조성과 예술적 자질에 대한 매개체로써 자신의 피부를 이용하는데 나무 조각가들처럼 피부의 표피를 자르기도 하고 조각가 작품을 깎아내는 것처럼 피부의 본성을 바꾸는 것으로써 예술 표현을 한다. 그들의 얼굴과 몸이 예술을 나타내는 캔버스인 것이다.

장식된 피부는 몸을 생동감 있는 조각품으로 바꾸어 놓고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끌어 올려놓는다.

아프리카의 경우 그들이 표현하는 육체의 의식적인 디자인은 비 정형화된 자연스러움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인간다운 문화의 표현으로써 확실히 특색을 이루는데 이 예술의 규칙은 시대나 지역의 성격에 의해 바뀌어

2) 김영희 외 6인, 앞의 책, p135-136

지거나 보태지기도 한다. 이는 19세기 전 이래로 존재한 많은 테라코타와 금속조각 작품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보여주는 조각 작품들은 아프리카 남서지역에 있는 Ife의 안가 주위에서 발견되었다. 이 발견 물은 균형 잡힌 절개로 신체표현을 포함하고 black, white, red의 어렴풋한 흠은 절개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당시의 아프리카인들의 페인팅의 형태를 보여 준다.

남아메리카의 주민들은 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춤추기 위해 그들은 자신을 검고 붉고 흰색으로 색칠하며 어떤 이들은 흰 깃털로 몸을 덮듯이 장식한다. 또 어떤 이들은 스페인 군인들의 의상을 직접 자신의 몸에 채색하기도 한다. 인디언 문명에 '예술을 위한 예술'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에게 예술은 신비롭지도 않다. 그렇지만 그들의 피부에 다른 문화로부터 온 사람들의 옷을 색칠하는 것은 흉내 내고자 하는 호기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것이다.

아시아 중 일본은 종교적 바디페인팅을 짐작해 낼 수 있는 진흙상(像)들이 정교한 줄무늬와 점 패턴을 지닌 채 발견되고 있다. 중요한 족장의 무덤에서 발견된 50~100cm 높이의 빨간색으로 페인팅 된 점토 상을 통해 그들의 몸이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게 장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4) 현대의 바디페인팅

장식된 피부는 현대의 산업화된 사회의 바디페인팅이나 문신, 얼굴 화장 같은 형식에서 찾을 수 있듯이 역사적인 기원을 추적해 낼 수 없다. 설령 고대의식의 페이스페인팅을 한 남자 배우의 경우를 제외한다 할지라도 현

3) 김영희 외 6인, 앞의 책, p137

대에는 피부장식을 통해 문명이 무의식적인 창조성과 변화에 대한 수용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inted 되거나 문신된 신체 또는 화장은 얼굴이 순수하게 예술적인 충동을 위한 표현이지 더 이상 전통에 대한 본능적인 교제나 의식을 위한 언어가 아니다. 그것들은 다르게 보이고 싶거나 모방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바디페인팅에서 피부는 경이로움을 계획하려는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즉흥성'이다. 순간의 열광 즉, 영원한 변경을 위한 욕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디페인팅의 효과이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이를 측정할 수도 없는 자연그대로의 어떤 것과 접촉하게 하며 해방되고 드러나고 싶어 하는 내면 속의 자아를 끌어다 주거나 완벽한 시각적 효과를 창조해 내는 바디페인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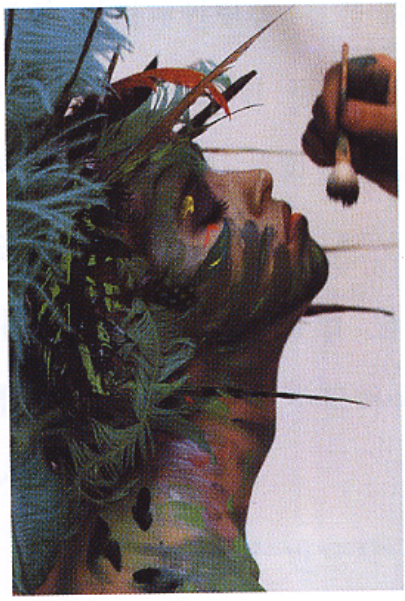
그러나 주목할 일은 새로운 순수예술 장르로 태동하려는 현대작가들의 뚜렷한 노력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바디페인팅 작가들은 창작성과 세련된 작품성과 퍼포먼스를 통한 완벽한 시각적 환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작품의 세계가 사회의 비판적 요소를 지녔든 아름다움만을 추구했든지 간에 놀라운 효과로 작품의 주제를 더욱 빛내는 것이다.

이렇게 순수예술의 장르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바디페인팅은 다양한 형식으로 그 존재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발전시키는 부류도 있다. 여기에서는 바디페인팅 쇼와 무용, 패션쇼 등이 주를 이루는데 무대, 조명, 음악은 물론 의상의 조화까지 이루는 종합예술(Total-Art)로서의 면모를 고루 갖추기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겠다.

이렇듯 바디페인팅은 원시시대의 주술적인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신체예술의 형태로 이어져 현대에는 독특한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잡아 왔으며, 즉흥적인 작품 뿐 아니라 실험성이 강한 작품까지, 그리고 무대에서 조명,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를 곁들여 표현하게 되는 무대예술로서도 자리를 굳건히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행사에서 국제비엔날레와 같은 국제적인 규모의 예술행사에 이르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예술문화의 한 장르로까지 인식되어 가고 있다.[4)]

<그림 3> 현대의 바디페인팅 Elvira Bach 작품
(출처: Decorated Skin)



<그림 4> 현대의 바디페인팅 Elvira Bach 작품
(출처: Decorated Skin)

4) 김영희 외 6인, 앞의 책, p140-141

5) 국내 바디페인팅의 비전

현재 신체 조형예술로서의 바디페인팅은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작업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바디페인팅은 정지된 상태로 일정시간 동안에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과는 달리 일회적이고 보존되지 않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정지되어 있는 예술품보다는 생동하는 다차원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 작품에서 실험적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며 영상매체로의 보존을 통해 오래도록 살아있는 감동을 줄 수 있다. 또한 21세기의 영상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재창조의 비전을 제시해 준다.

국내의 바디페인팅은 80년대 말부터 해외에서 바디페인팅을 접한 후 귀국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의해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1996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후 여러 문화행사<그림 5~8>의 개막식이나 폐막식의 무대에서 공연되고 있다.[5]

90년대 말부터는 대학의 미용관련학과들의 높은 관심으로 졸업 발표회 때마다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요즘은 바디페인팅의 주목성을 부각하여 기업의 홍보, 광고, 패션 쇼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제 바디페인팅은 신체 조형예술로 자리 잡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행위예술의 계승과 발전의 의무는 현대 미용예술인의 몫으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예술과 무대예술분야에서 보여 지는 다양한 역할을 더욱더 확대 발전 시켜나가야 하겠다.

---

5) 박혜선, "조선시대 문자도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13

<그림 6> 1997년
광주 비엔날레
(출처: 토탈 메이크업)

<그림 5> 2003년
Hi seoul 페스티벌
(출처: 단무작품)

<그림 8> 2003년
고양시 꽃 박람회
(출처: 최지나 작품)

<그림 7> 기업 홍보를
위한 바디페인팅
(출처: 최지나 작품)

4. 바디페인팅의 표현기법

화가는 안정적이며 움직임이 없는 소재에 작업을 하지만 바티페인팅 아티스트는 움직이는 모델과 협력하여 순간적인 예술작품을 창조해내고자하며 작업의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모델과 작업을 하면서 예술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화가들이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모델의 얼굴과 몸을 소재로 이용하여 전통적인 메이크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디페인팅은 피부에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아주 비주얼적인 신체예술이다.

1) 회화적 기법

회화적 기법<그림 9~14>은 여러 가지 회화적요소를 이용한 바디페인팅 기법으로서 바디페인팅의 표현기법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자연물을 주제로 묘사하거나 표현하고자하는 주제를 형상화시켜서 비교적 보는 이로 하여금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표현기법은 메시지 전달에 용이하다.

대표적인 예로 꽃, 동물, 바다 속, 우주공간, 태양, 인물 등 다양하며 회화적인 기법 또한 정밀한 사실묘사, 관념적 묘사, 약화 등 아티스트의 의도나 역량에 따라 다양해진다.

색상의 사용도 자유로워서 모든 색상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 하지만 표현하는 사람의 색채 감각이나 개인적인 취향, 주제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회화적 표현기법의 바디페인팅은 회화적 요소에 충실하게 작업하여 일반적인 회화 작품과 유사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또한 바디페인팅 작업에서는 똑같은 주제라고 회화적 기법이아니라 에어브러시 기법이나 그래픽적인 표현기법 등 표현기법에 변화를 주면 전혀 다른 새로운 표현 양식이 된다. 바디페인팅의 표현양식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업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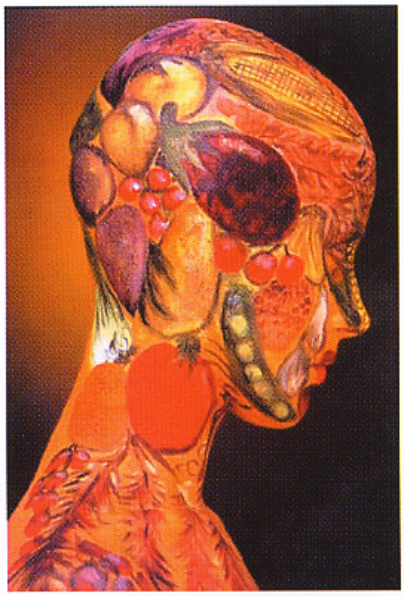
<그림 9> 회화적 표현기법의 바디페인팅 (출처: 바디페인팅&아트메이크업)

<그림 10> 회화적 표현기법의 바디페인팅 (출처: 바디페인팅&아트메이크업)

6) 박혜선, "조선시대 문자도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13

<그림 11> 회화적 표현기법의 바디페인팅
(출처: Painted bodies)

<그림 12> 회화적 표현기법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 world.bodypainting.festival)



<그림 13> 회화적 표현기법의 바디페인팅 (출처: 바디페인트 포트폴리오)

<그림 14> 회화작품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출처: sf메이크업)

2) 그래픽적인 표현기법

그래픽적인 표현기법<그림 15~20>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회화적 기법에 반대되는 개념의 표현기법으로 제한하였다.

이 표현기법은 나타나는 형상의 대상을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모티브를 주제로 한다. 선의 나열, 흑백의 조화, 큐빅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로 찍는 행위 등이 있으며 색의 배열 또한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물감을 인체에 흩뿌리거나 물감 위를 뒹구는 행위 등의 즉흥적인 페인팅도 이 부분에 해당되며 조금 더 적극적인 예술적 행위로 간주되어 행위예술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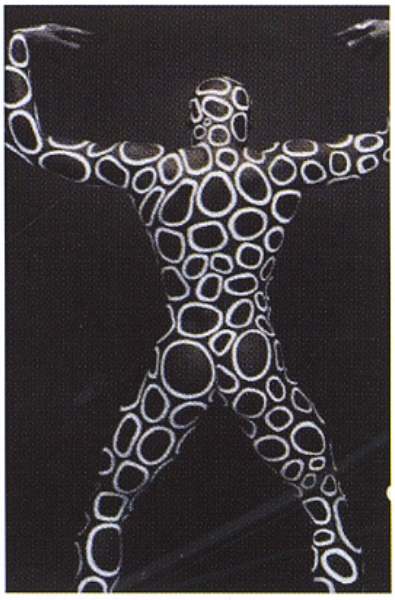
<그림 15> 그래픽적인 표현기법의 바디페인팅
Sam shahid 작품
(출처: 맥 코스메틱)

<그림 16> 그래픽적인 표현기법의 바디페인팅
Frances hathaway 작품
(출처: 맥 코스메틱)

<그림 17> 그래픽적인 표현기법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 바디페인팅& 아트메이크업)

<그림 18> 그래픽적인 표현기법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 크리오란)

<그림 19> 그래픽적인 표현기법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Serge lutens)



<그림 20> 그래픽적인 표현기법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Angela Adams 작품 (출처: 맥 코스메틱)

3) UV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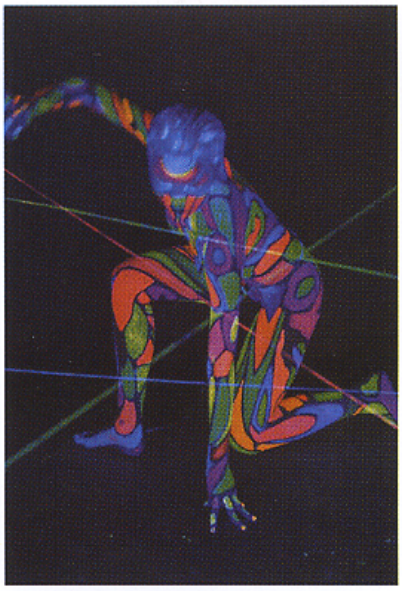
수성물감 중에는 UV발광 물감이 있는데 이 물감은 일반 조명에서도 색상을 보여주지만 UV라이트(블랙라이트)에서 보다 선명한 색상으로 발광한다. 일반 조명에서는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UV라이트에서는 투명한 불빛으로 보여 진다. <그림 21~24> 이 물감은 일반수성물감과 겹쳐서 사용할 수 있다. 먼저 물감으로 그라데이션 표현을 하고난 후 다시 UV물감으로 그 위에 작업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물감을 섞어서 사용하면 UV물감의 발광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특징을 살려서 디자인하여 페인팅한 작품은 쇼 무대에서 특히 많이 활용된다.

이 표현기법은 UV라이트의 와트 수에 따라 색상의 선명도가 좌우되고 다른 일반 광보다는 UV라이트 단독 사용 시 효과가 더욱 크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기법을 이용하여 활발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용 공연 시 하체는 블랙타이즈를 신고 상체만 UV발광물감을 이용해 페인팅 하여 UV라이트를 켜고 공연을 하면 마치 상체만 허공에 떠서 움직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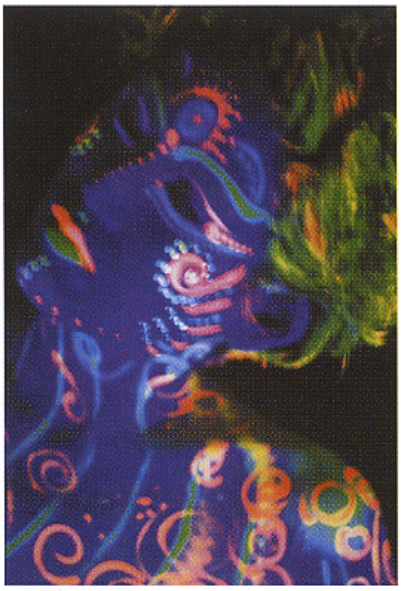
이 재료를 사용하여 페인팅 할 때는 이물간의 성질과 효과를 사전에 확인하고 무대의 크기, 연기자의 활동 범위, UV라이트가 작품에 반응할 수 있는 거리등을 잘 계산하여 작업에 임해야 한다.[7]

---

7) 박혜선, 앞의논문,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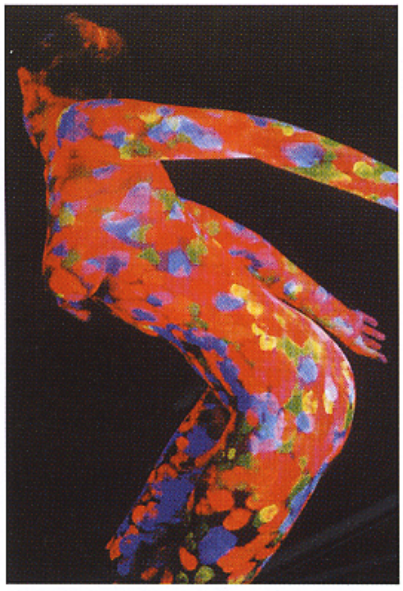


<그림 21> UV 표현기법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 아트메이크업)



<그림 22> UV 표현기법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 아트메이크업)

<그림 23> UV 표현기법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 색채와 뷰티코디네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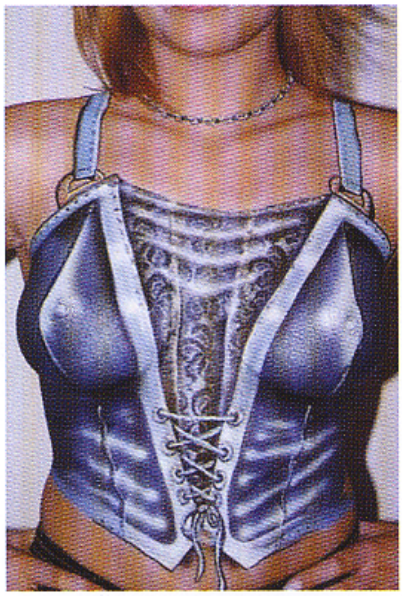


<그림 24> UV 표현기법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 바디페인트 포트폴리오)

4)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표현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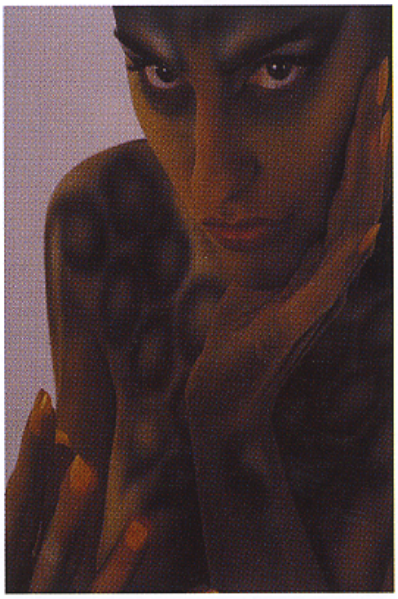
에어브러시 기법<그림 25~30>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분야에서 대중화된 특수기법으로 최근 바디페인팅작업 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콤프레셔로 물감을 일정한 공기의 압력으로 밀어내고 에어브러시 건을 통해 원하는 부위에 분사하여 채색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손으로 직접 칠하는 것보다 정교한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또한 원하는 모양의 그림을 잘라낸 후 판을 몸에 대고 에어브러시로 뿌리면 스텐실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은 인체에 무해한 에어브러시 전용 물감을 이용해야만 한다.



<그림 25>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 Body Paint)

<그림 26>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Airbrush & Make-up)



<그림 27> 에어브러시를 이용한바디페인팅(출처: AIRBRUSH&MAKEUP)

<그림 28>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 크리오란)

<그림 29>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 Boy Paint)

<그림 30>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 크리오란)

5) 질감의 표현기법

바디페인팅에 있어서 질감표현은 온 몸의 피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각되고 기억되는 촉각적 질감과 우리의 대뇌에 기억되고 저장되는 시각적 질감이 포함하는 것으로서 아티스트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질감의 근원은 자연의 질감에 근거한다. 부드럽다, 거칠다, 갈라진다, 말랑말랑하다, 딱딱하다, 글로시하다, 미끈미끈하다 그리고 금속 질감, 흙의 질감, 다양한 직물의 효과, 촉촉한 느낌, 균열감과 같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으로 표현된다. 또한 색이나 명암효과, 표면지문 등을 통해 촉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림 31~35>

바디페인팅의 질감은 매우 중요하며 작품의 이미지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하는 재료와 도구에 따라 질감의 효과가 달라진다. 인체에 페인팅을 했을 때 붓을 사용했을 때와 스펀지를 사용했을 때의 느낌은 아주 다르다. 일반 스펀지, 블랙스펀지, 라텍스 스펀지 등 스펀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질감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 바디페인팅에 있어서의 질감은 여러 가지 느낌을 달리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림 31> 직물의 질감을 표현한 바디페인팅
(출처: 바디페인트 포트폴리오)

<그림 31> 나무질감을 표현한 바디페인팅 (출처: 바디페인트 포트폴리오)

<그림 32> 머드 팩, 숯 팩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 아트 메이크업)

<그림 33> 흙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출처: 최지나 작품)

<그림 34> 금속질감을 표현한 바디페인팅 (출처: 바디페인트 포트폴리오)

Ⅲ. 에어브러시의 이해

1. 에어브러시의 개념

에어브러시는 압축한 공기에 의해 물감을 뿜칠(강하게 뿜어내 칠하는)하는 방법을 에어브러시라 한다. 즉, 만년필처럼 쥐고 물감을 화면에 분사시켜 농담(濃淡)을 표현하는 기구로서 일러스트레이션, 사진의 수정,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며 실제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카달로그(cadalogue), 팜플렛(pam-phlet), 포스터(poster), 염색 등의 2 차원적인 작품들과 도예, 조각, 모형제작, 무대배경, 의학용 등 입체 물에게 까지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그것은 원시적인 분무와 같은 것부터 분무기 그리고 콤프레셔를 이용한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공기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은 보통 여기에 해당 되는데 현재는 콤프레셔를 이용하여 에어브러시에 의해 그리는 방법이 대명사처럼 되었다. 치밀하게 칠할 수 있다는 것, 붓과 같은 터치를 남기지 않는 특색이 있고 그 응용범위는 상당히 넓다. 에어브러시는 매우 정교하게 되어 있어 자기의 의사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적인 훈련을 거쳐야만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에어브러시는 직역하면 "공기 솔", "공기 붓"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말로 "피스 콤프레셔" 줄여서 "피스콤"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모두 기계로 실시되는 것인데 평균하여 미세한 분무를 내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것이었다. 우선 공기가 같은 압력으로 에어브러시에 보내져야 한다. 또 에어브러시

에는 노즐과 잉크 탱크가 있고 레버에 의해 물감의 양이나 공기를 조절한다. 이때 액체로 된 물감의 입자가 분무되는 것이다.

에어브러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마스킹(Masking)이라고 해서 뿜칠 하는 면에 미리 그리고 싶은 모양으로 오려낸 마스크(Mask)를 할 필요가 있다. 또 뿜칠한 면에 다른 색이 뿌려지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러한 때 역시 마스크를 한다. 이 마스크에 의해 에어브러시의 표현은 무한하게 되고 보다 예술성 높은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에어브러시는 물감인 잉크를 안개 모양의 입자로 해서 분출하는 것인데 마스킹은 반대로 그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반복에 의해 이미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에어브러시는 다른 도구와 함께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같이 병행하여 사용하면 보다 더 좋은 작품을 제작 할 수 있다.

2. 에어브러시표현의 발전과정

지금부터 약 3만 5천년 전에 구석기인은 속이 비어있는 뼈를 사용하여 분말인 레드오커를 동굴 벽에 뿜칠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일찍 알려진 프랑스의 라스코나페슈멜르 동굴에 반복하여 나오는 이미지는 손의 윤곽이다. 그러나 그 후 공기압을 사용한 미술이 쭉 계속되어 온 것은 아니다. 17세기경에는 "먹뿜기"라는 기법이 소개되고 있었지만 서양에서 알게 되기까지는 19세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에어브러시가 언제 발명되었는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찰스 버딕이 영국에서 이 장치의 특허를 얻고 런던의 크라켄 웰 에 제조회사를 설립한 1893년보다 조금 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버딕은 미국인으로 대서양을 건너 스스로 "파운팅 브러스 컴퍼니"를 창립하기 직전에 미합중국에서 에어브러시를 발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1888년의 미국 특허에 에어브러시보디의 설계도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므로 정확한 연대는 확정할 수 없다.

찰스 버딕은 수채화가였으며 수채화 작업 중에 이미 채색(彩色)되어 있는 그림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 위에 덧칠하는 방법을 찾던 가운데 발명되었다고 한다. 버딕의 발명이 획기적이었던 것은 노즐과 니들, 캡을 구비한 것으로 이 원리는 오늘날까지 공기의 분무작용(噴霧作用)에 의한 스프레이 건(Spray-gun)의 기본이 되었다.

버딕의 회사가 최초로 시판한 기종 "A"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한 것이었다. 플라스티나제이며 노즐의 구멍은 0.18mm, 물감을 넣은 컵은 에어브러

시에 내장되어 있었다. 이것은 에어로그래프 슈퍼 63과 같은 오늘날이 뛰어난 에어브러시와 비교해도 대부분의 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공기를 공급하는 호스는 끼워 넣기 식이고 나사식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의 일 이었다. 그 점을 제외하면 이 기능을 지난해 시판되었다고 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작품이었다. 2단식의 레버구경이 다른 것과 교환 가능한 노즐과 함께 처음부터 장비되어 있었다. 버딕이 스스로 이 기구를 "에어로그래프"라고 이름 하였으며 에어브러시는 그 후 얼마동안 에어로그래프라고 불려지고 있었다.

장착이 가능한 물감 컵이 발달한 것은 1900년대의 초기로서 모델 "E"에는 뚜껑이 없는 컵이 붙여지고 모델 "C"에는 밀폐식의 컵이 붙여졌다. 니들을 고정한 "뉴모그래프"는 섬세한 작업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이것은 1920년에 등장하고 있다. "AE"도 이미 만들어지고 여분의 물감이 나오지 않도록 레버에 "어베이트먼트"가 붙여지고 스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물감의 밸브가 에어밸브보다 먼저 닫혀 지도록 캠을 장비했기 때문에 "아마츄어용 에어브러시"라고 불려졌다. 같은 종류의 캠은 오늘날에도 독일의 "에프베"등의 에어브러시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에베이먼트에 해당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1920년대에는 에어브러시의 제조에 주로 미국의 회사가 몇 회사 진출하고 그 대부분은 버딕의 "에어로그래프"를 흉내 내어 중력식 에어브러시를 생산하게 되었다. 윌드사 등의 기존회사가 몇 시장에 참가하고 발명가가 개인으로 회사를 만든 예도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발명가는 노르웨이의 트론드하이므에서 온 이민인 젠즈 A. 파세로서 1904년에 시카고에서 회사를 설립했다. 파세가 독자적으로 만든 에어브러시는 지금도

섬세한 작업에 적합한 우수한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터보식의 "AB"는 오늘날에도 가장 진보된 에어브러시라 할 수 있는 것인데 파세의 독창에 의한 것이었다. 매분 2만 회전까지 가능한 터빈은 소량의 물감으로 천천히 뿜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1920년에 파세는 또 하나의 다른 타이포의 에어브러시 "에어이레이져"를 만들었다. 이것은 물감대신 에 산화알루미늄 등의 연마제를 뿜칠 하는 것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우거나 삭각하든가 할 수 있다. 더구나 정밀기기의 부품이나 보석의 세척, 치과 재료의 성형보정, 조각, 그리고 리토그래프의 하이라이트에까지 응용할 수 있다. 이처럼 1920년대까지에는 오늘날의 에어브러시의 원형은 시장에 나와 있고 그 후 60년간에 변한 것은 중력식의 사방이 조금 변경된 정도였다.

하지만 마우스 스프레이와 같은 원리에서도 흡입식의 에어브러시의 기술을 낳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다른 발명이 필요하다. 하나는 버딕의 니들과 노즐이고 또 하나는 아란 드비르비스 박사의 고안이다. 박사는 오하이오주 트레이의 이비인후과의 전문의로 환자의 목구멍에 효과적으로 약제를 도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위해 박사는 깡통과 고무의 볼, 튜브를 사용해서 분무기를 개발하고 실험에 성공하여 2년 후인 1890년에 회사를 설립했다. 드비르비스사는 그 후 향수 그 밖의 스프레이를 제조하고 1931년에는 에어로그래프사를 병합한다. 드비르비스와 버딕은 친구끼리였으므로 버딕이 고국 미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을 때 이미 영국에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던 친구에게 기꺼이 회사를 양도 했던 것이다. 오늘 날의 에어브러시의 기초는 이 드비리비스와 버딕 두 사람이 구축했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압착공기의 공급기기도 여러 가지의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발밟기식 펌프로 탱크가 붙은 것도 있었다. "팔크람"(지렛대) 타이프는 발의 상하 운동으로 공기압을 올리는 것인데 그 사이는 뿜칠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스케이트" 타이프 혹은 "스윙"타이프는 발을 전후로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 방법이 취급은 훨씬 간단했다. 핸드펌프도 발매되고 있었는데 완전한 아마츄어용으로 아직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증기식의 콤프레셔도 등장했는데 다른 증기식의 기기와 마찬가지로 전기제품을 앞으로 모습을 감추어 버린다. 전동식의 콤프레셔는 에어브러시의 출현과 동시에 사용되고 공기 공급원으로서 주류를 차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포터블식의 작은 콤프레셔는 1970년경부터 시판되고 에어브러시를 친숙한 것으로 하는데 있어서 큰 공헌을 했다. 1972년의 압착공기 들이의 포터블의 깡의 등장도 값싸지는 않지만 역시 에어브러시를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것으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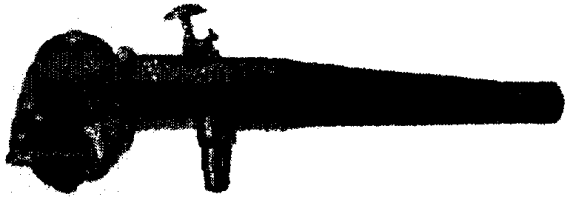
이처럼 공기 공급 계통은 1980년대에 이르러 발전했지만 에어브러시 자체는 1920년 이전의 기종과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미국, 영국, 유럽, 일본에서 만들어진 많은 기종이 시장에 넘치고 있다. 에어브러시의 보급은 20세기의 서구 문명이 탄생시킨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염가의 공기 공급원의 등장과 대량문화의 매스컴 문화의 개화가 에어브러시의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특히 예술로 간주되는 인식상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8]

에어브러시가 우리나라에 전수된 것은 1940년대 후반 경으로 추정되며 초기에는 인쇄제판의 수정과 음화 및 양화 사진의 수정 등에 사용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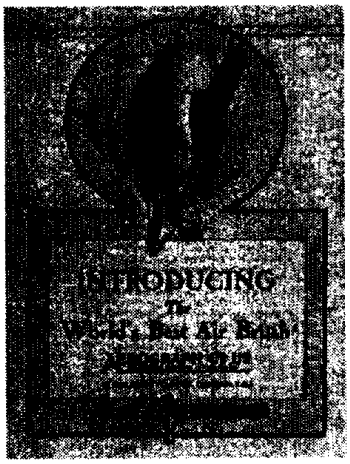
8) 김상원, 『디자인을 위한 피스실무』, 명지출판사, 1986, p.19

완전한 에어브러시라기보다는 사진이나 제판의 부분수정 등에 지나지 않는 상태였으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픽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현대회화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바디페인팅과 네일 아트 분야에서도 사용이 점차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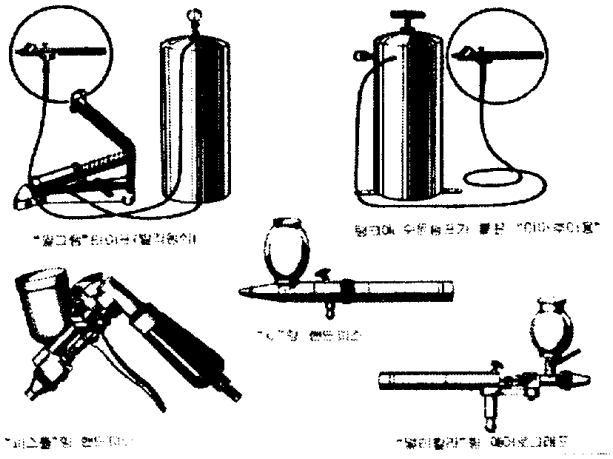
<그림 36> 파쉐의 에어일레이져 (출처: 에어브러시 북)



<그림 37> 파쉐의 터보 AB형 에어브러시 (출처: 에어브러시 북)



<그림 38> 아마츄어용 에어브러시라는 에어로그래프 "AE"
(출처: 에어브러시 북)



<그림 39> 초기의 에어브러시 비품과 에어브러시 (출처: 에어브러시 북)

3. 에어브러시의 원리와 이용범위

1) 에어브러시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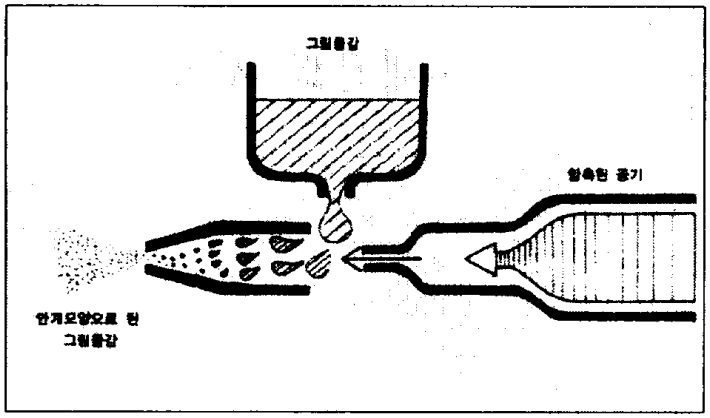
에어브러시의 원리라는 것은 참으로 간단하다. 보통 세 가지의 기구(機構)로 나눌 수 있다. 압축된 공기를 보내는 부분과 물감을 주입하는 부분과 안개 모양이 된 물감을 분출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압축된 공기로 물감을 안개 모양으로 해서 분출하고 브러싱(brushing)하는 역할<그림 40>을 하는 것이 에어브러시이다. 얼핏 보아도 단순하게 생각되는 기구는 실제로는 매우 정밀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압축된 공기를 보내는 장치는 옛날에는 아마 입이었을지도 모른다. 공기를 보내지 않으면 뿜칠을 할 수가 없다. 공기는 일정한 압력을 가진 안정된 것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압력이 그때마다 변화 한다고 보면 브러싱한 것에 얼룩이 생겨 버린다. 그 때문에 정밀도가 높은 안정된 콤프레셔를 선구자들은 계속 추구해 왔다.[9]

안개모양으로 만드는 부분을 피스 또는 에어브러시 건이라고 부른다. 이른바 노즐을 가진 장치이다. 압축된 공기가 물감과 함께 좁은 노즐에 밀어 넣어지면 안개모양으로 튀어 나온다. 이 에어브러시 건에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누름 버튼이 붙어 있다. 분출구는 약간의 가감으로 안개의 상태를 바꾸어 버린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부분이 이상적으로 기능해서 비로소 좋은 뿜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9) 앞의 책, p.40



<그림 40> 에어브러시의 원리
(출처: 디자인을 위한 피스실무)

2) 에어브러시의 이용범위

에어브러시는 현재 어떠한 곳에 이용되고 있을까? 라는 물음에 어떠한 용도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떠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많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에어브러시가 붓의 대용품이었던 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하나의 도구, 하나의 테크닉으로서의 영역을 확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더욱 더 그 응용 범위는 넓어지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용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범위로 살펴보자.

(1) 일러스트레이션

도안에서 출발한 에어브러시의 분야이다. 현재로는 상당히 일반화 되었으며 디자인의 중요한 테크닉의 하나이다. 그러나 컴퓨터그래픽에 밀려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편이다.

예) 삽화, 포스터, 전단, 컷, 팜플렛, 레터링 등

(2) 사진 수정

이미 존재해 있는 사진 등에 작업을 하는 것으로 좋은 작품을 더욱 좋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결점의 보완과 수정이 목적이며 주제가 되는 세부(細部)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모노크롬 사진도 컬러사진도 수정할 수 있다. 주로 인쇄 원고가 되는 사진의 수정을 하는데 물론 사진 자체의 수정도 한다.

예) 인쇄용 사진원고, 사진의 수정, 리터치 등

(3) 제 판

에어브러시가 인쇄의 제판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제판 기술의 진보에 따라 에어브러시는 그 적응 방법에서 더욱 발전하려 하고 있다.

예) 제판, 오프셋, 인쇄 등

(4) 도 장

어떤 것이든 표면을 매끈하게 도장할 경우 에어브러시는 적합한 도구이다. 자동차의 도장, 목공가구나 기재의 도장, 건축물의 벽의 도장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용보다 특수한 효과를 낼 때나 마무리 작업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 벽면도장, 가구도장, 자동차 도장 등

(5) 도 자 기

부분적 채색(彩色)과 그림을 그려 넣을 때, 유약을 뿜을 때 간편하고 유용하게 쓰인다.

(6) 판 화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사용은 상품의 디스플레이용 카드와 초대장 등의 마스크에 사용한 스텐실에서였다. 리놀륨판과 목판화에서는 볼록면의 텍스츄어(texture)를 만들거나 바꾸어 판화의 한결같은 인쇄에 독특한 변화를 준다. 또한 잉크를 바른 단계에서 사용하며 그라데이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며 에칭의 경우 연하게 탄 왁스를 에어브러시로 판면에 뿜어 네가티브(nagative)를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7) 기 타

선과 형태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액체상태에 어떠한 재료라도 다양하게 응용 가능하다. 생소한 분야에까지 에어브러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더욱 폭넓은 사용이 예측된다.

예) 도자기의 그림 넣기, 텍스타일 , 네일아트, 바디페인팅 등

4. 에어브러시의 기구

에어브러시는 물감을 불어내는 부분인 "에어브러시 건(Airbrush Gun)" 줄여서 "에어 건"이라고도 하며 이 에어 건과 공기를 압축하여 호스를 통해 에어 건으로 보내는 "콤프레셔 (compressor)"라고 하는 기구가 있다. 더 세분하면 압축공기를 저장하는 에어탱크와 항상 같은 압력으로 공기가 나오게 하는 압력 조절기, 그리고 공기속의 수분을 여과시키는 공기 여과기 등이 있다.

또한 현재는 압축된 프로판 가스등을 작은 캔에 넣어서 여기에 에어브러시 건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에어봄베(피스콤)라는 것도 있으나 이것은 압력이 떨어지면 사용하는데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작업량이 많은 에어브러시를 할 때는 콤프레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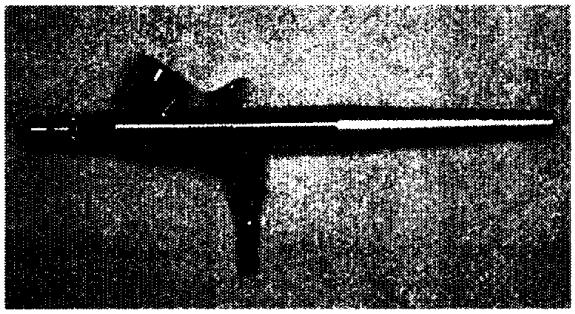
1) 에어브러시 건

에어브러시 건<그림 41~42>은 중간 부분에 버튼이 있어 이것을 아래로 누르면 공기가 나오며 강하게 누를수록 공기가 많이 나온다. 손을 떼면 버튼은 스프링 작용에 의해 자동적으로 되돌아가 공기의 공급이 중단된다. 이 버튼을 앞으로 당기면 물감이 나오는 노즐이 열린다. 따라서 버튼을 눌러 공기를 내 보내면서 약간 앞으로 당시면 물감이 나오며 브러싱(brushing)상태가 된다. 노즐의 규격은 지름이 0.2mm~1mm가 있으며 노즐의 지름이 작을수록 가늘고 고운 입자로 분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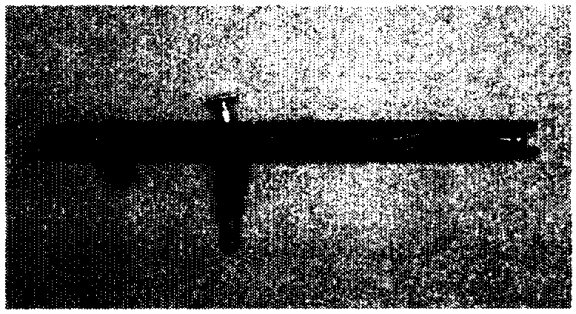
버튼이 멈추는 데까지 앞으로 당기면 물감 분사 량은 최대로 되며 이와

같이 에어브러시 건은 손가락 하나로 누르고 당기기를 동시에 하면서 물감과 공기의 양을 조절하며 작업을 한다.

또한 버튼을 당기지 않고 누르기만 하여 공기만을 뿜어내어 화면을 건조시키기도 한다.



<그림 41> 에어브러시 건
(출처: 디자인을 위한 피스실무)



<그림 42> 에어브러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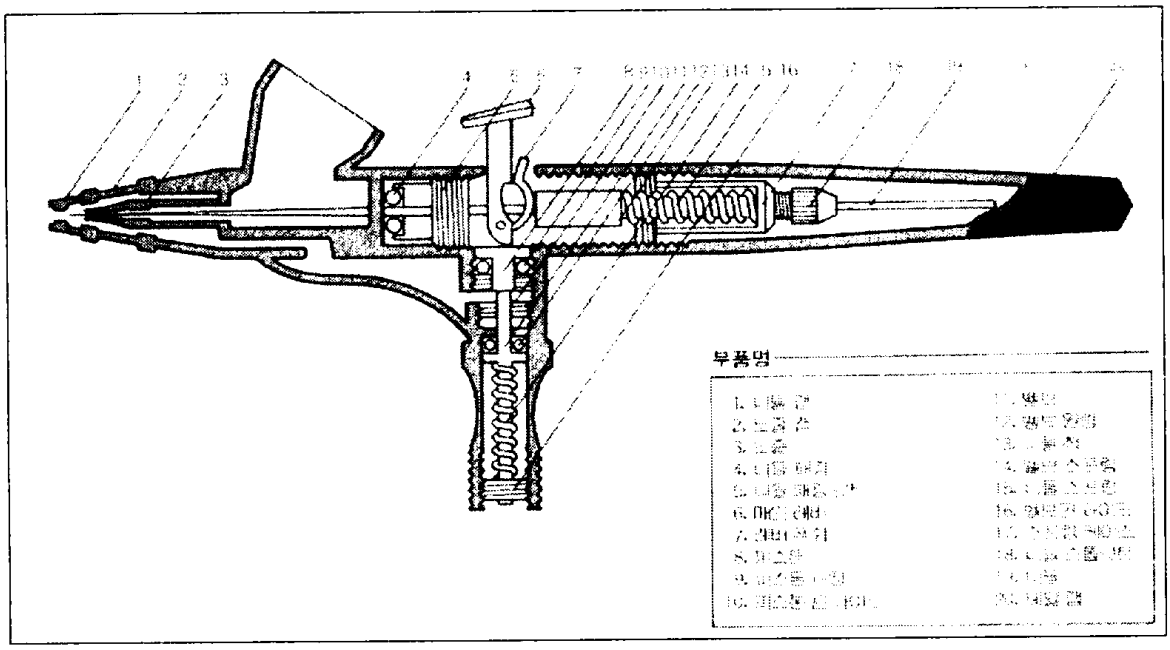
(1) 에어브러시 건의 구조

에어 건에는 니들(Needle)이라고 하는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은 분사하는 노즐(Nozzle)구멍을 막아서 불필요할 때 물감이 노즐에서 분사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버튼에 직결되어 있으며 버튼을 누르면서 당기면 노즐과 니들사이에 간격이 생겨서 물감 분출구로부터 물감이 나오게 되며 물감이 분사된다. <그림 43>

노즐의 주위를 공기가 힘차게 회전함으로써 그곳의 압력이 떨어지므로 이때에 노즐을 열어주면 물감이 기압에 눌려서 노즐로부터 나와 공기와 혼합되어 분무된다. 이는 분무기와 같은 원리이며 말하자면 에어브러시는 기계장치가 된 분무기라고 볼 수 있다.[10]

---

10) 김공웅, 『에어브러시 일러스트레이션』, 조형사, 1988, p.141



<그림 43> 에어브러시 건의 단면도 (출처: 에어브러시 일러스트레이션)

(2) 에어브러시 건의 조작

에어 건은 "좌", "우"어느 손으로든지 할 수 있다. 손으로 가볍게 잡고 인지(人指)를 레버(버튼)위에 놓는다. 에어호스가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손목에 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화면과 브러시와의 거리는 1~2㎝에서 15㎝정도이며 화면과 가까울수록 강한 표현이 될 수 있으며 반면에 화면과 떨어질수록 약하게 되면서 브러싱(brushing)의 면적은 넓어진다. 처음에는 못쓰는 종이위에서 레버(버튼)를 눌러 공기를 뺀 다음 색칠할 화면위로 에어 건을 신속히 옮겨 버튼을 누르면서 앞으로 당겨 불감을 분무한다. 물감의 농도는 버튼을 당기는 정도로써 조절하며 원하는 농도가 되면 레버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넓은 면적을 채색할 때는 에어 건을 이동시키지만 이때에 손목만을 움직

이면 화면에 대한 에어 건의 각도가 변화되어 평균적으로 고르게 브러싱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고르게 브러싱 하고자 할 때에는 에어 건과 화면과의 각도가 90°를 유지하여 움직이면서 브러싱 하도록 해야 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레버(버튼)을 누르고 당김의 강약에 따라 브러싱의 면적과 정밀도의 적용이 달라진다.

세밀하고 가는 묘사 표현에는 공기 양을 적게(적당량)하고, 넓고 굵은 면의 브러싱에는 공기 양을 비교적 많게 하며 모래 망 표현 묘사에는 니들 캡과 노즐 캡을 빼낸 다음 레버의 누름을 약하게 하면 거친 모래 망이 표현되면 레버의 누름을 강하게 하면 고운 모래 망을 재현 할 수가 있다.

즉, 약하게 누름은 공기의 양이 적고 강하면 공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곱게 분무가 된다.

(3) 에어브러시 건 쥐는 법

① 버튼 식

바른손으로 연필을 쥐는 듯한 동작으로 인지 또는 엄지손가락을 버튼위에 올려놓고 작업 준비에 들어간다. 이때에 손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튼 식은 버튼을 누르면 공기가 나오고 그대로 앞으로 당기면 니들이 함께 당겨지면서 노즐이 열리고 물감이 노즐의 구멍으로부터 분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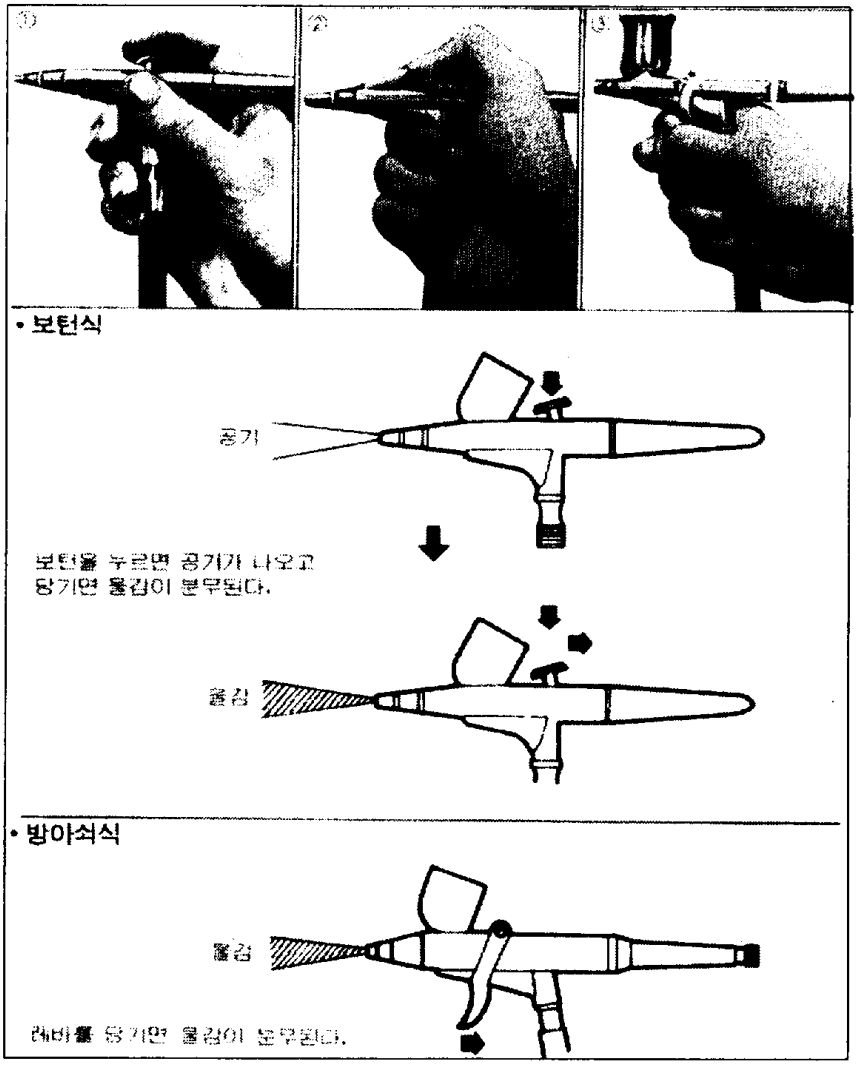
당기는 정도에 따라 그 분무 상태도 변하며 강하게 당기면 물감양이 많이 나오고 분무의 확대 범위도 크게 되므로 전면도색이나 엷게 칠하는데 적합하다. 반대로 약하게 당기면 분무 범위가 좁고, 작은 점, 가는 선을 연출할 수 있다. 작업이 끝나면 니들 끝이 상하지 않도록 천천히 버튼을

복귀시키고 손가락을 뗀다. <그림 44- ①, ②>

② 방아쇠 식

권총을 쥐는 동작으로 인지를 둥글게 하여 레버를 당기는 정도에 따라 농도의 강약이 자유롭게 조절된다.

조작은 버튼식보다 간다하면 방아쇠를 앞으로 당기기만 하면 분무되므로 손이 피로하지 않다. <그림 44-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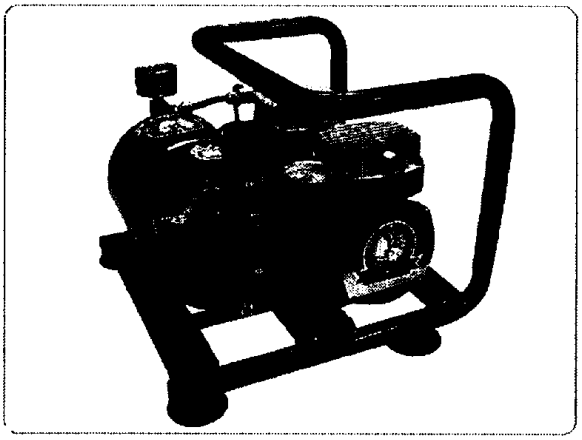
<그림 44> 에어 건을 바로 쥐는 법
(출처: 에어브러시 일러스트레이션)

2) 콤프레셔

에어 건으로 보내는 압축공기는 콤프레셔<그림 45>에서 만들어진다. 콤프레셔에는 에어탱크가 달려있어 압축공기를 항상 일정량 유지하며 충만되면 압력조절기에 의해서 정지되고 에어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가동되는 대형과 탱크가 없어 압축과 공기공급을 동시에 하는 소형이 있다. 가능하면 모터출력이 크고 에어탱크가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탱크가 있으면 에어압력의 맥동이 없어서 안정된 공기의 흐름으로 인하여 세밀한 작업의 브러싱에도 좋다.

에어브러시는 평균 1.4kg/㎠의 공기압(1400밀리버)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자동스위치를 2.8kg/㎠(2800밀리버)에서 2.1kg/㎠(2100밀리버)으로 조정해 놓으면 2.8kg/㎠의 공기압으로 콤프레셔가 정지한점에서 에어브러시에는 1.4kg/㎠의 공기압을 공급하도록 하고 브러싱을 한다.

탱크속의 압축공기가 줄면 탱크속의 공기압도 내려가지만 2.1kg/㎝가 되면 자동스위치가 작동해서 콤프레셔가 재차 가동하기 시작한다. 즉 공기압은 자동제어를 하게 되므로 콤프레셔의 일은 생각지도 않아도 전원만 연결된 상태면 계속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형은 운반 이동이 간단하며 가격도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에어압력의 맥동이 에어 건에 전달되어 가는 선을 그었을 때 점선 현상이 나타나며 세밀한 작업을 할 경우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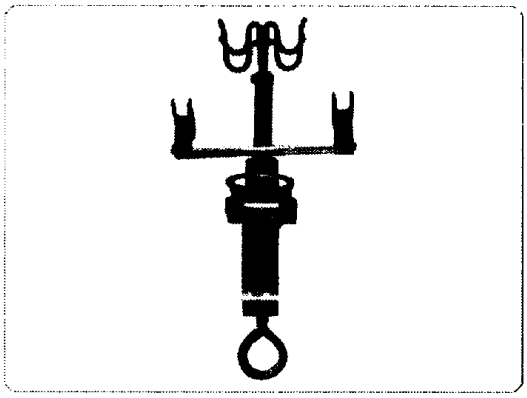


<그림 45> 콤프레셔 (출처: kp 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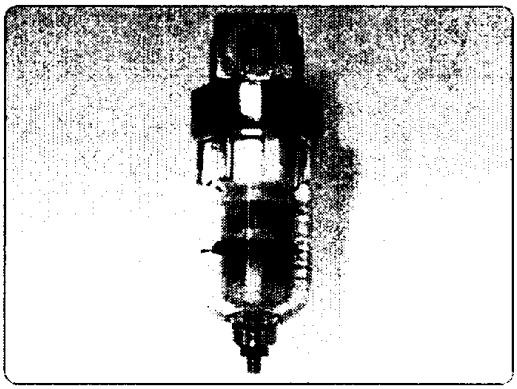
3) 에어브러시 홀더와 압력조절 에어휠터

(1) 에어브러시 홀더

여러 개의 에어 건을 사용할 때에 사용하지 않는 에어 건을 걸어놓을 수 있게 설계 제작된 제품이며 사용 중 편리한 위치에 부착하여 놓으면 여러 개의 에어 건을 함께 걸어놓고 각각 다른 물감을 넣어 놓고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그림 46>



<그림 46> 에어브러시 홀더
(출처: kp shop)



<그림 47> 압력조절에어휠터
(출처: kp shop)

(2) 압력조절 에어휠터

모든 콤프레셔는 탱크속의 공기와 대기 중에 습기를 포함하고 있어 압축하면 물방울이 브러싱 하는 도중에 호스를 통하여 작품 위에 튀어서 더렵혀질 경우가 있으므로 에어건과 콤프레셔 중간 위치에 호스에 압력조절 에어휠터를 부착하여 휠터 안에 수분이 고이게 되면 수시로 수분을 제거해야 한다.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 중에 움직이지 않아도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부착하면 좋다. <그림 47>

Ⅳ.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의 표현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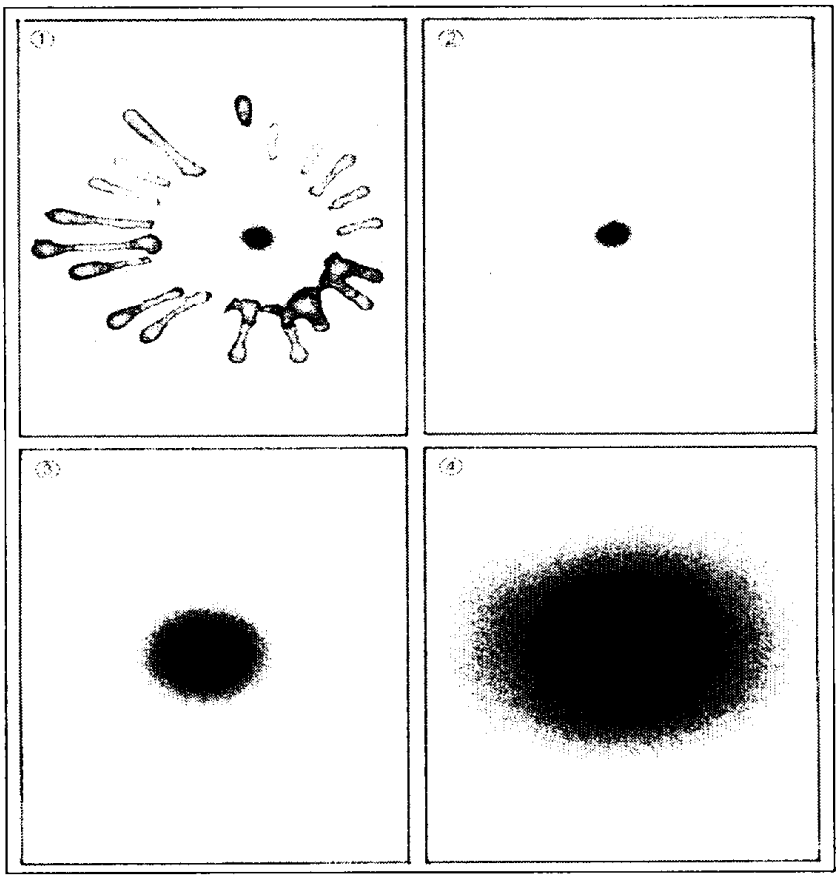
1. 에어브러시의 표현효과

에어브러시 표현효과의 장점을 보면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화면도색, 섬세한 선의 표현, 매끄러운 그라데이션(gradation), 명암의 대비(contrast) 등을 위해 붓 대신 사용하여 부드러운 음영(陰影)과 투명감 있는 색조를 표현하는 것이 에어브러시 표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 에어브러시의 거리와 농도

에어브러시에서는 화면과 에어 건과의 거리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에어 건의 분사각도에 따라서 표현하는 형태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완벽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브러시 경험에 의해서 에어 건마다의 특성을 알고 있는 것이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림 48> 에어브러시분사 거리와 농도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에어브러시 분사 전에 못쓰는 종이 위에서 우선 공기를 뺀다. (이 때에 청소 후 니들 캡 속에 물기가 있는 것이 작품에 뿜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림 48-①> 둘째, 가까이에서 뿜으면 진하고 작은 원이 생긴다. <그림 48-②> 셋째, 약간 떨어져서 뿜으면 큰 원이 되고 색이 엷어진다. <그림 48-③> 넷째, 10cm이상 떨어져서 뿜으면 원이 더 커지고 더욱 색이 엷어진다. <그림 48-④> 이와 같이 거리에 따라 농도의 변화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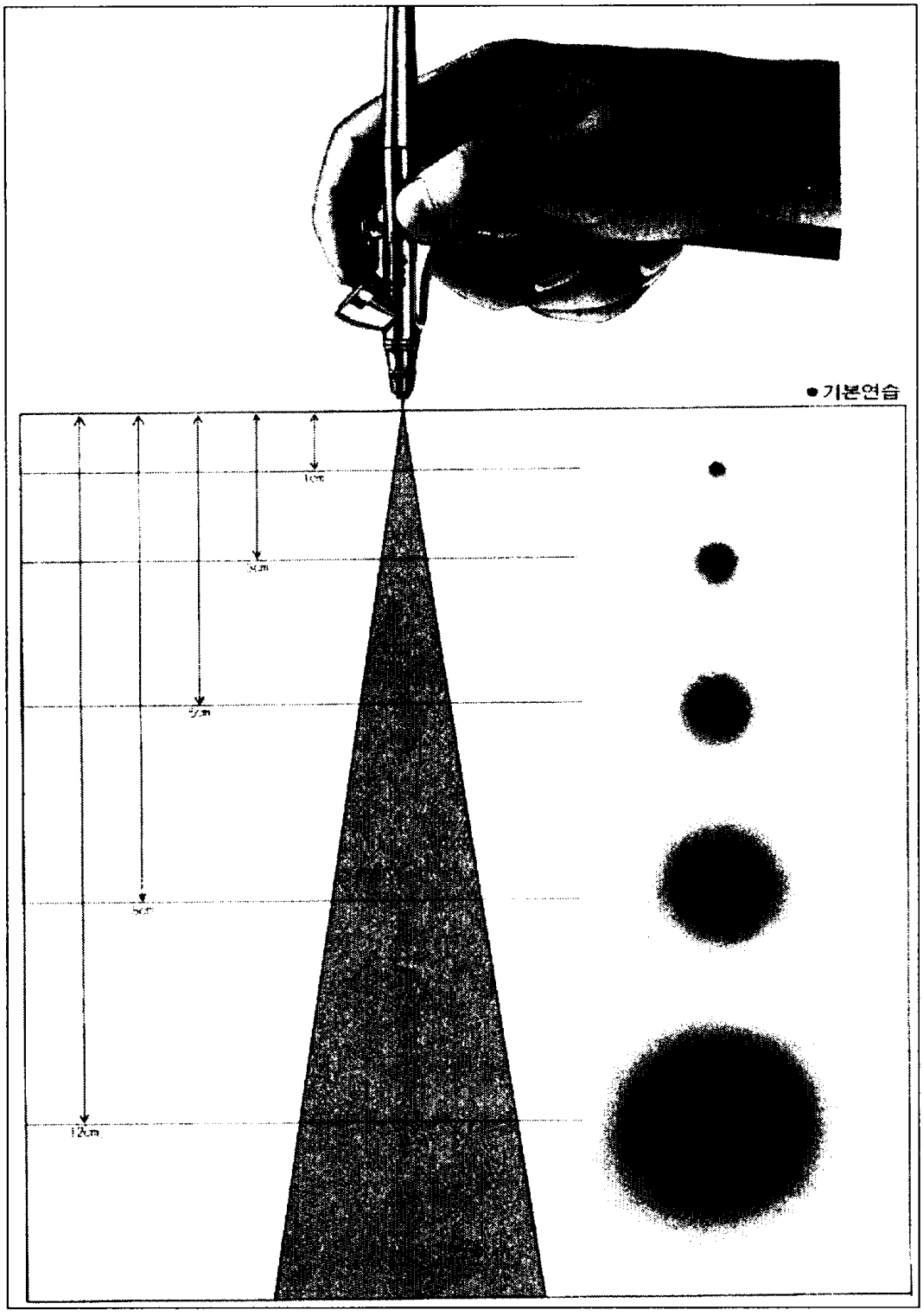


<그림 48> 에어브러시 분사 거리와 농도
(출처: 에어브러시 일러스트레이션)

2) 화면거리와 조작의 강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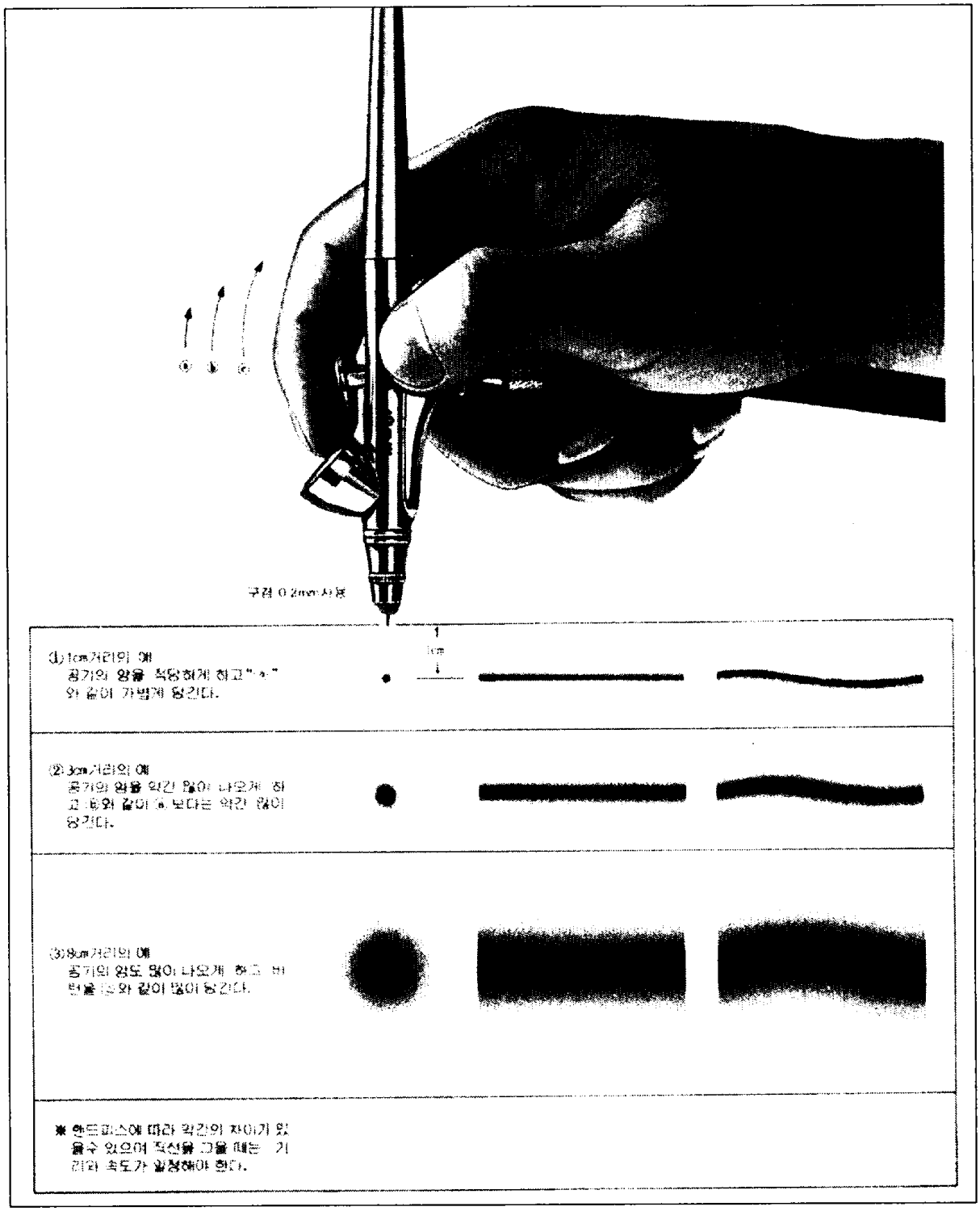
에어 건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감은 니들구경의 차이에 의해 일정한 각도로 넓어지게 설계되었다. <그림 49> 가까운 거리(1cm~3cm)에서 브러싱할 때에는 공기와 물감의 양이 다같이 적도록 조정하고 10cm 이상의 거리라면 그와 반대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위에서 얘기 한 것은 기본에 불과하며 브러싱의 면적과 정밀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특히 입자가 굵고 불규칙적인 모래 망 묘사에는 노즐 캡을 빼고 약하게 브러싱하면 강약에 따라 모래 망이 형성된다.



<그림 49> 화면거리와 조작의 강약
(출처: 에어브러시 일러스트레이션)

3) 점, 선의 표현과 거리의 관계



<그림 50> 점, 선의 표현과 거리의 관계 (출처: 에어브러시 일러스트레이션)

2. 에어브러시의 기초 표현

1) 선

선은 점의 이동에 의해 그려지므로 에어 건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공기량과 물감의 양도 일정하게 하여 좌, 우, 상, 하 어느 쪽으로도 그릴 수 있다. 다만 직선은 어깨를 중심으로 하여 그려야 하며 팔만을 이동하여 그리게 되면 어깨를 중심으로 한 반경의 곡선이 되기 때문에 그리는 선과 어깨는 언제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선의 굵기는 점과 마찬가지로 화면과의 거리로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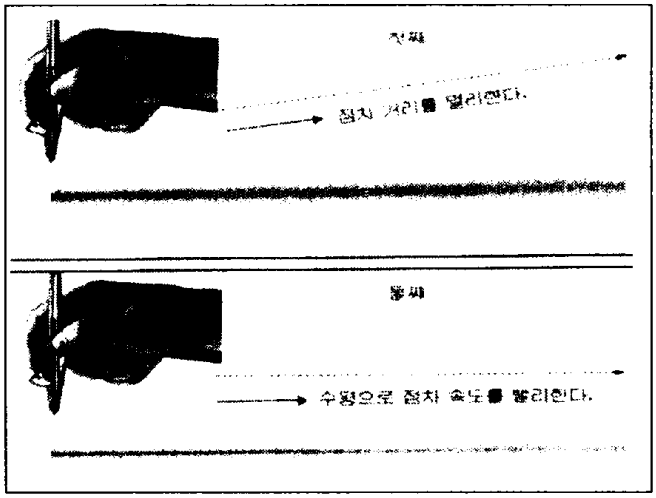
프리핸드에 의한 직선을 그릴 때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림 51>

첫째, 에어 건과 화면과의 거리를 점차 멀게 하면 연하게 그려지며 다만 끝 부분이 시작보다는 넓게 그려짐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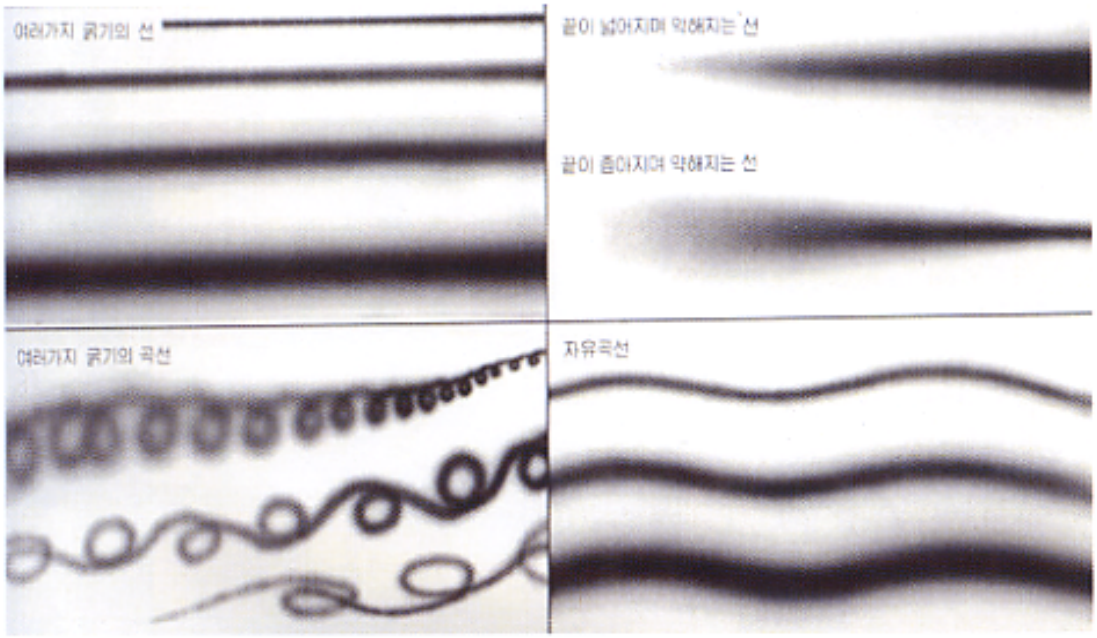
둘째, 처음 시작한 거리에서 수평으로 점차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끝 부분이 연하게 그려진다.

그러므로 끝부분이 완전히 없어지게 그리려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끝 부분 쪽에서는 버튼을 점차 원위치로 놓으면 물감이 나오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공기만 나오고 물감의 양만 조절하는 경우가 된다.



<그림 51> 에어브러시 선의 강약
(출처: 에어브러시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52> 에어브러시의 여러 가지 선 (출처: 에어브러시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53> 선을 이용한 표현(출처: 크리오란)

<그림 54> 선을 이용한 표현 (출처: 크리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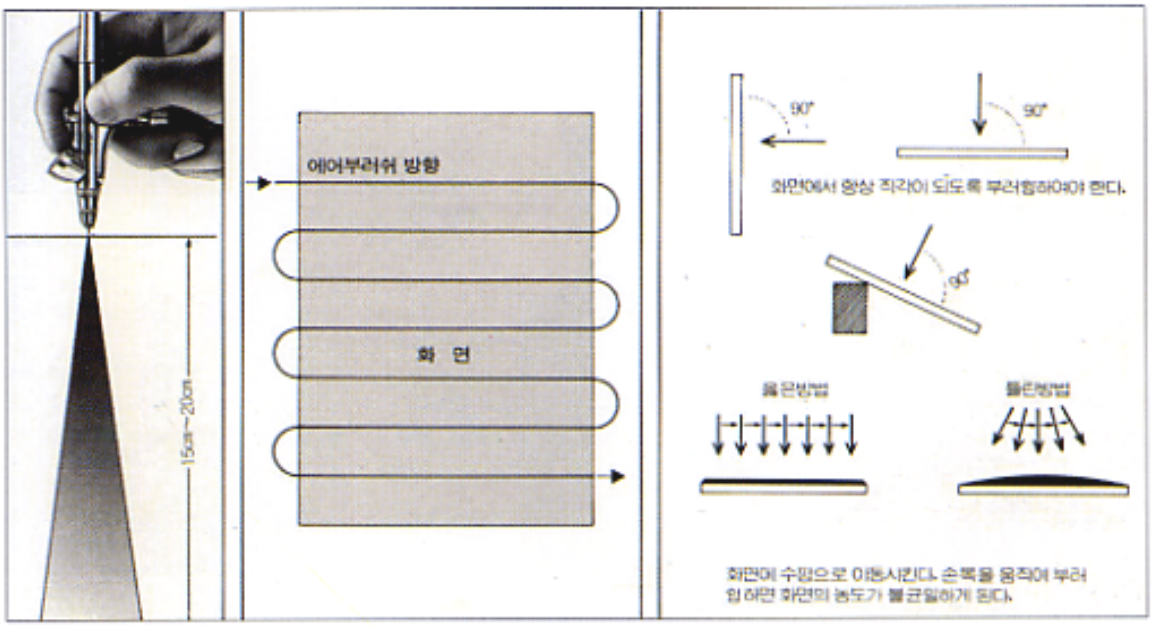
2) 면

에어 건으로 면을 만드는 것은 에어브러싱의 기본이며 색의 얼룩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이다.

우선 작업에 필요한 준비가 되면 못쓰는 종이위에 분무 상태를 테스트해야 한다. 면은 선의 겹침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굵은 선을 항상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고 일정한 속도와 평행으로 이동하면서 일정한 양이 분사되도록 해야 된다.

에어 건의 선택도 물감의 양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화면의 크기와 물감의 성격에 따라 피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작업의 순서는 처음부터 생각했던 색상을 나타내려고 하면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농도를 높여 가야한다. 면과 브러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언제나 에어 건과 각도를 90°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 물감의 분사 량도 처음 시작 면과 끝이 같아야 하며 면에 색상이 이 거의 표현된 상태에서는 약하게 조절하여 색상이 약한 부위를 보강하며 마무리 하여야 한다. <그림 55>면의 올바른 분무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레버를 조절하여 물감이 약하게 분사 되도록 하여 평행으로 일정하게 브러싱하고 둘째, 농도를 올리기 위해 레버를 좀더 당겨서 물감의 양이 많이 나오게 하여 브러싱한 후 셋째, 화면과의 거리를 좀더 멀리하여 전체적으로 얼룩부분을 약하게 보강하면 된다.



<그림 55> 면의 올바른 분무방법 (출처: 에이브러시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56> 면을 이용한 표현(출처: 크리오란)

<그림 57> 면을 이용한 표현(출처: 크리오란)

3) 그라데이션

위 그림면의 올바른 분무방법과 같이 움직이지만 종이의 아래쪽으로 올수록 레비에 가해지는 힘을 약하게 한다. 이 결과 일정한 칠이 서서히 연해지면서 없어지는 그라데이션<그림 58>이 된다. 매력적인 작업이지만 얼룩이 없도록 작업하는데 집중을 요한다.

<그림 58> 그라데이션 (출처:에어브러시 북)

<그림 59> 그라데이션
표현 (출처: 크리오란)

<그림 60> 그라데이션
표현 (출처: 크리오란)

3. 에어브러시의 응용 표현

1) 스텐실 표현

필요한 부분에만 브러싱을 하는 것 이것을 스텐실 <그림 61>이라고 부르고 있다. 스텐실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작품을 마무리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스텐실 기술은 형상을 그려내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확실히 익혀두는 것이 좋다. 에어브러시에서 스텐실 사용하는 것은 정확함과 편리함 때문이다. 사실상 에어브러시의 작업이 90%정도는 적절한 효과와 표현 때문에 스텐실을 사용하며 재료로서는 스텐실이 되면 어떠한 것이라도 되는 셈이지만 주로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딱딱한 종이나 필름이 사용된다. 물을 빨아들여 늘어나게 되면 주름이 생겨 형상이 망가지게 되거나 화면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손쉽게 종이를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으나 투명 필름을 주로 사용한다.

에어브러시 작품의 제작과정 중에 가장 숙련을 요하는 부분이 스텐실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잡한 작업일수록 수많은 스텐실을 필요로 한다. 각 영역마다 칼로 자르기 전에 먼저 사고력을 요구한다.

작업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잘라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브러싱을 하고 난 뒤엔 자르려고 하는 영역이 첫 번 브러싱으로부터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흐릿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며 투명한 필름 속을 보지 못하면 정확히 자르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물감은 불 침투성인 마스킹 필름의 표면에서 건조가 빠르지 못하므로 물감이 손에 묻거나 바탕을 더럽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자르기의 비결은 일단 필름이 바탕에 고정되어 있으면 바탕 그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서 명확하고 깨끗하게 잘라내야 한다. 연필로 자유롭게 금을 그을 때와 대단히 밀접하며 칼로 자를 때 명확하고 자신에 차 있어야 하며 확고하지 못하거나 한번 잘랐던 곳을 다시 자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곡선을 자르려고 할 땐 곡선 자르는 칼(Curve cutter)을 사용토록 하며 이것은 칼날 끝이 곡선과 같이 움직이게 되어있어 사용할 때 부분 부분에서 날의 균형을 잡고 수고를 덜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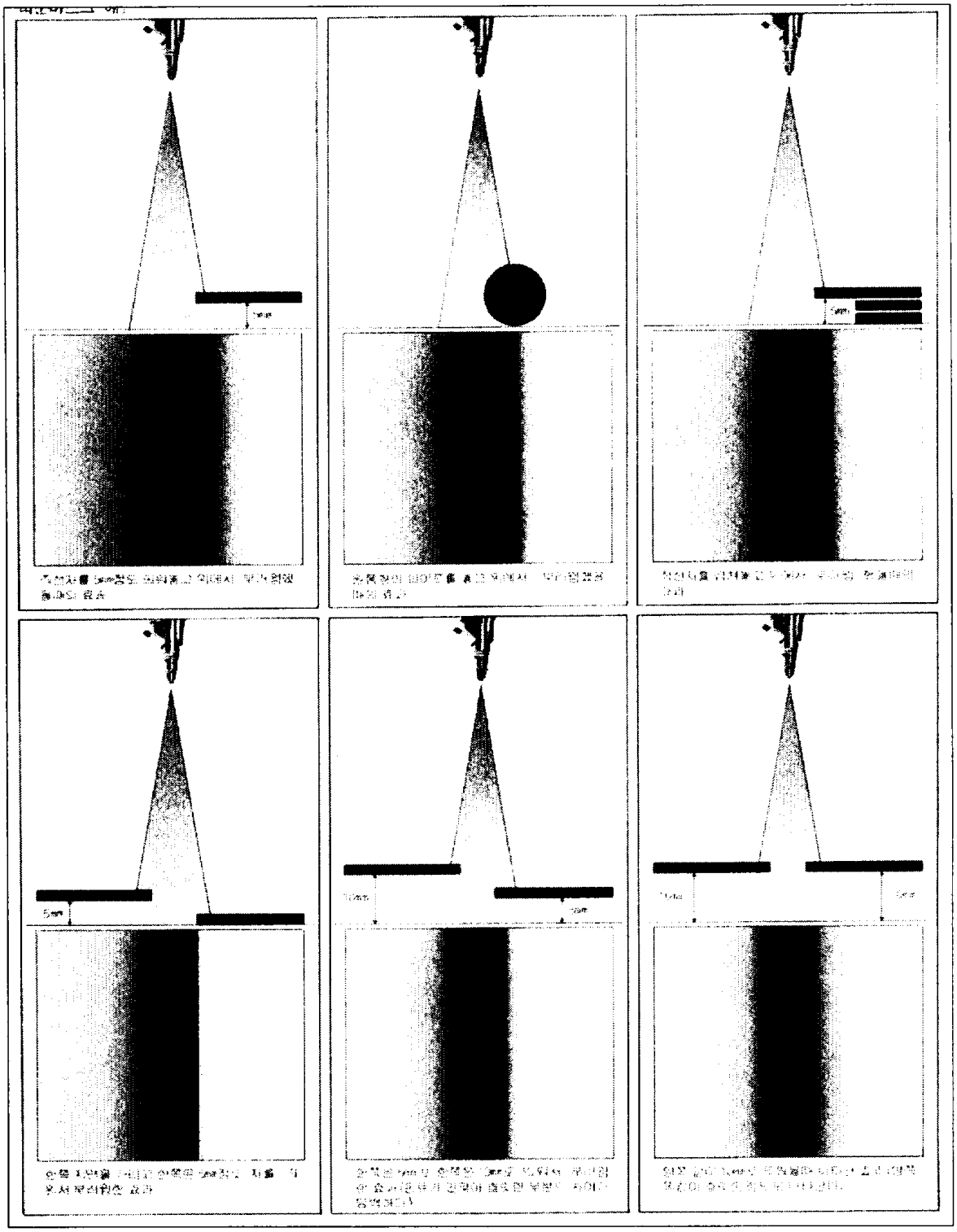
훌륭하게 자르는 것은 평범한 에어브러시라 할지라도 좋은 작품을 제작해 낼 수 있으나 훌륭한 에어브러시라 할지라도 스텐실작업이 서툴다면 좋은 작품을 만들기란 어렵다고 보겠다.

2) 스텐실의 응용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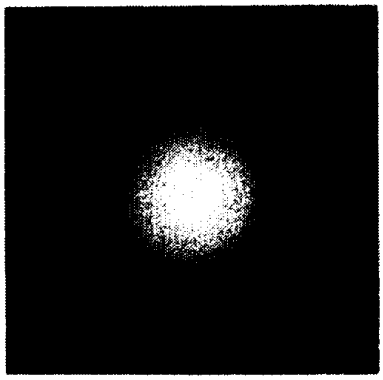
(1) 원의 표현

일반 원은 바탕의 배경보다 연한 색의 물감으로 빈틈없이 동그라미 동작으로 브러싱하면 된다. 조금씩 바깥쪽으로 원이 확장될 수 있도록 나선형으로 돌리면서 브러싱한다. <그림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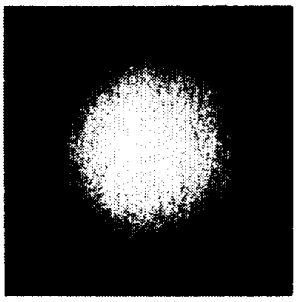
중심이 밝은 원은 모든 바탕에 짙은 색을 브러싱해 밝은 원을 자아낼 수 있다. 이 방법은 노력을 요하는 복잡한 방법이다. 안쪽에서 먼저 원 주위를 브러싱한 후 바깥쪽으로 옮겨가며 브러싱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브러싱이 확산됨에 따라 안쪽의 브러싱이 2.5cm 정도 바깥에서 한 브러싱으로 물감을 뒤덮인다는 점이다. 동그랗게 브러싱을 같은 곳에서 반복하면 얼룩이 생긴다. <그림 63>의 화살표시는 브러싱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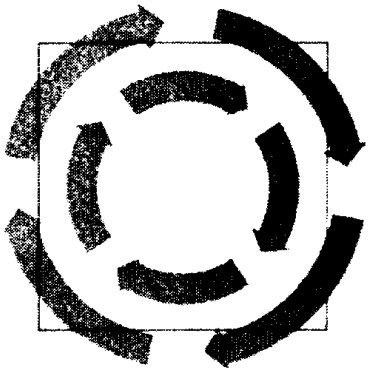


<그림 61> 띠운 스텐실 예 (출처: 에어브러시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62> 작은 원
(출처: 에어브러시 북)





<그림 63> 중심이 밝은 원
(출처: 에어브러시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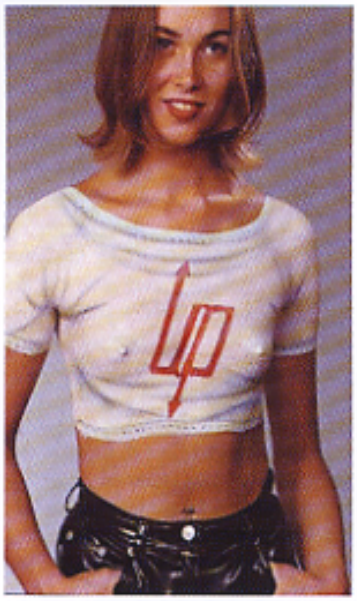
<그림 64> 중심이 밝은 원과 별 표현
(출처: 크리오란)

<그림 65> 원이나 곡선표현을 위한 도구
(출처: Boy Paint)

(2) 문자, 문양의 스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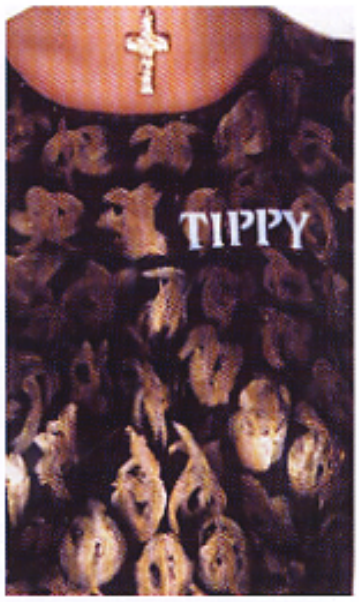
① 전체 바닥을 마스킹한 뒤 문자나 원하는 형태의 문양을 디자인한 모양대로 잘라낸 다음 비스듬한 각도에서 떨어져 폭넓게 브러싱한다.

<그림 66> 문자 스텐실 (출처: 에어브러시 북)



<그림 67> 스텐실 표현
(출처: Boy Paint)

<그림 68> 스텐실 표현
(출처: Boy Paint)



<그림 69> 스텐실 표현
(출처: Boy Paint)

② 문자나 문양을 잘라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차 엷어지도록 브러싱한다.

<그림 70> 문자 그라데이션 (출처: 에어브러시 북)

<그림 71> 문양그라데이션
(출처:Airbrush
and Make-up)

<그림 72> 문양그라데이션
(출처: 크리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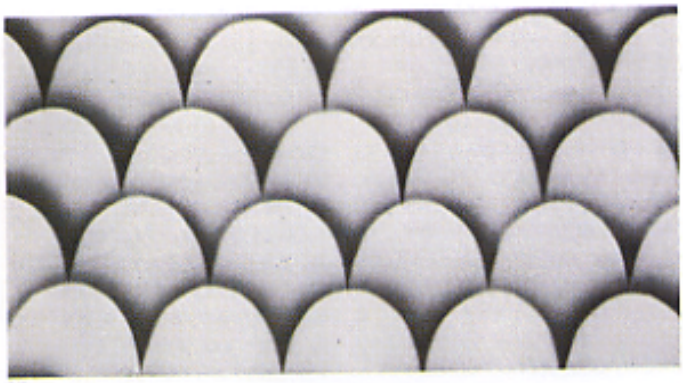
③ 먼저 문자나 문양을 핸드브러시로 칠한 다음 전체 바닥을 마스킹하고 문자나 문양의 왼쪽 브러싱할 부분을 잘라낸다. 속도감의 효과를 주기위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갈수록 엷어지게 브러싱한다.

<그림 73> 속도감 주기
(출처: 에어브러시 북)

<그림 74> (출처: world.bodypainting.festival)

(3) 스텐실의 반복 효과

간단한 타원의 소용돌이무늬, 파도무늬 등은 계속 중복되었을 때 환상적인 패턴으로 변형된다.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면 효과가 더 증진된다. 예를 들어 반원을 반복해서 브러싱하면 물고기의 비늘처럼 재미있는 디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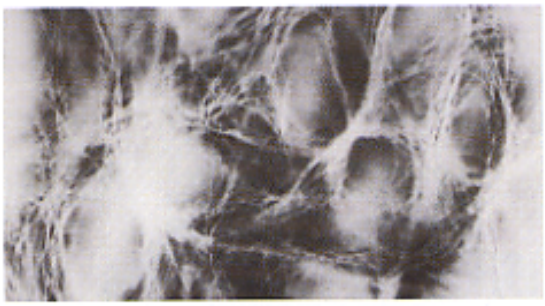


<그림 75> 스텐실의 반복효과
(출처: 에어브러시 북)

<그림 76>스텐실 반복효과(출처: Boy Pa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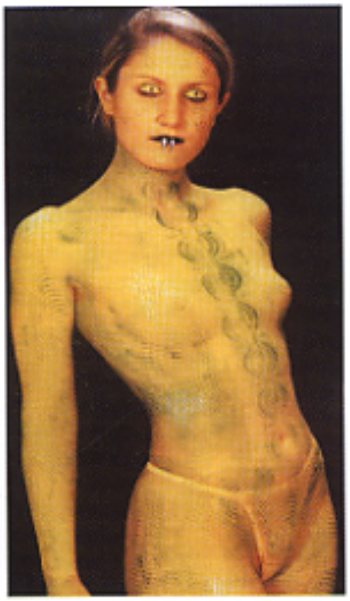
(4) 결 무늬 만들기

어망이나 레이스, 철망 같은 스텐실을 바탕에 밀착시키고 그 위에 물감을 브러싱하면 다양한 결 무늬 디자인을 얻을 수 있다.



<그림 77> 결 무늬 만들기
(출처: 에어브러시 북)

<그림 78> 철망 결무늬
(출처: 크리오란)



<그림 79> 어망 결무늬
(출처: 크리오란)

(5) 오브제를 이용한 스텐실

우리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스텐실로 응용할 수 있는 재료는

무궁무진하다. 자연소재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나뭇잎과 줄기, 조류의 깃털, 등과 인공소재의 경우 종이, 섬유, 금속류, 비닐,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스텐실로 응용할 수 있다.

2) 자유로운 브러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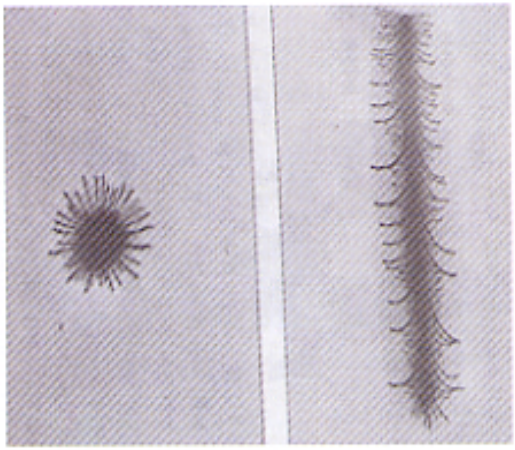
자유로운 에어브러싱(free hand airbrushing)이 가지는 직접적인 잇 점은 작가의 의사대로 광범위한 표현 가능성을 가지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단히 세부적인 작업도 가능하나 이것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날카로운 선을 나타내고자 할 때이다. 선을 긋기에는 핸드브러시와 마스킹이 요구된다. 에어브러시의 제작과정은 미세한 부분을 조목조목 다듬질하는 핸드브러시와 달리 흐르는 듯이 능숙한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형태를 갖춘 영역을 마스킹(Masking)하고 아티스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레버를 조절하여 브러싱하면 배경이 연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배경의 구름효과는(필요하다면 펜슬로 연하게 형태의 윤곽을 밑그림 그려도 된다 그림 80, 81) 비교적 섬세한 브러싱의 결과이다.

3) 거미줄 얼룩효과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기를 뿜어 만들어낸 원이다. 조그만 원을 브러싱한 후 물감 공급을 중단하고 원 중심에 공기만을 뿜어 집중시키면 이것이 물감이 마르지 않은 원의 가장자리를 흩트려 거미줄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82, 83> 물감의 농도와 공기의 분출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 80> 자유로운 브러싱 Richard Lohr 작품
(출처: 맥 코스메틱)

<그림 81> 자유로운 브러싱 Arkadius 작품
(출처: 맥 코스메틱)



<그림 82> 거미줄 얼룩효과
(출처: 에어브러시 북)

<그림 83> 거미줄 얼룩효과 (출처:한국분장예술)

Ⅴ.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의 작품제작

1. 작품제작의도와 방법

현대의 바디페인팅은 새로운 조형예술 장르로 태동하려는 현대작가들의 뚜렷한 노력에 의해 창작성과 세련된 작품성과 퍼포먼스를 통한 완벽한 시각적 환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작품의 세계가 사회의 비판적 요소를 지녔든 아름다움만을 추구했든지 간에 놀라운 효과로 작품의 주제를 더욱 빛내는 것이다.

이렇게 조형예술의 장르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바디페인팅은 다양한 형식으로 그 존재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발전시키는 부류도 있다. 여기에서는 바디페인팅 쇼와 무용, 패션쇼 등이 주를 이루는데 무대, 조명, 음악은 물론 의상의 조화까지 이루는 종합예술(Total-Art)로서의 면모를 고루 갖추기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겠다.

이렇듯 바디페인팅은 원시시대의 주술적인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신체예술의 형태로 이어져 현대에는 독특한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 왔으며, 즉흥적인 작품 뿐 아니라 실험성이 강한 작품까지, 그리고 무대에서 조명,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를 곁들여 표현하게 되는 무대예술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행사에서 국제비엔날레와 같은 국제적인 규모의 예술행사에 이르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예술문화의 한 장르로까지 인식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자는 바디페인팅을 연구함에 있어 좀더 다양한 표현기법, 좀더 폭넓은 시도를 위하여 에어브러시표현 기법을 작품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에어브러시라는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작업하게 될 때의 장점을 보면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붓 터치와는 다른 자로 잰 듯한 깔끔한 처리와 부드러운 음영(陰影)과 투명감 있는 색조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섬세한 선의 표현, 매끄러운 그라데이션(gradation), 명암의 대비(contrast), 작업 시간의 단축과 많은 양의 작업도 손으로 하던 페인팅보다 더 쉽고 많이 해낼 수 있다는 점과 동일한 그림을 여러 명을 할 경우 손쉽게 할 수 있는 점 등이 에어브러시 표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바디페인팅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인체에 부담이 적은 인체전용 수성물감과 에어브러시 전용물감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인체라는 특성상 작품의 보존이 어려우므로 각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자의 5점의 작품제작에서는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표현의 장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작품으로 전개시킴으로서 바디페인팅 작업에 있어서 에어브러시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표현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문적인 에어브러시 도구들을 이용해 작업했지만, 사전작업이나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종종 다른 메이크업 테크닉들을 병행해 쓰기도 하였다.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인 메이크업 테크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에어브러시에 자신이 익숙해진 이후에는 다른 어떤 도구들보다 에어브러시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2.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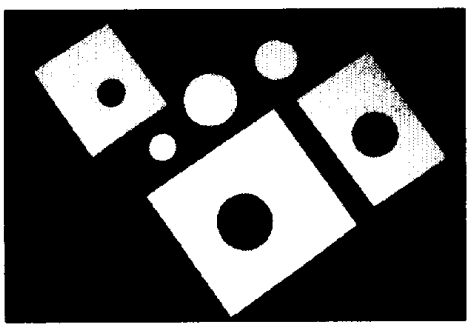
1) 작품 I

가. 주제 : 명암의 표현을 이용한 자연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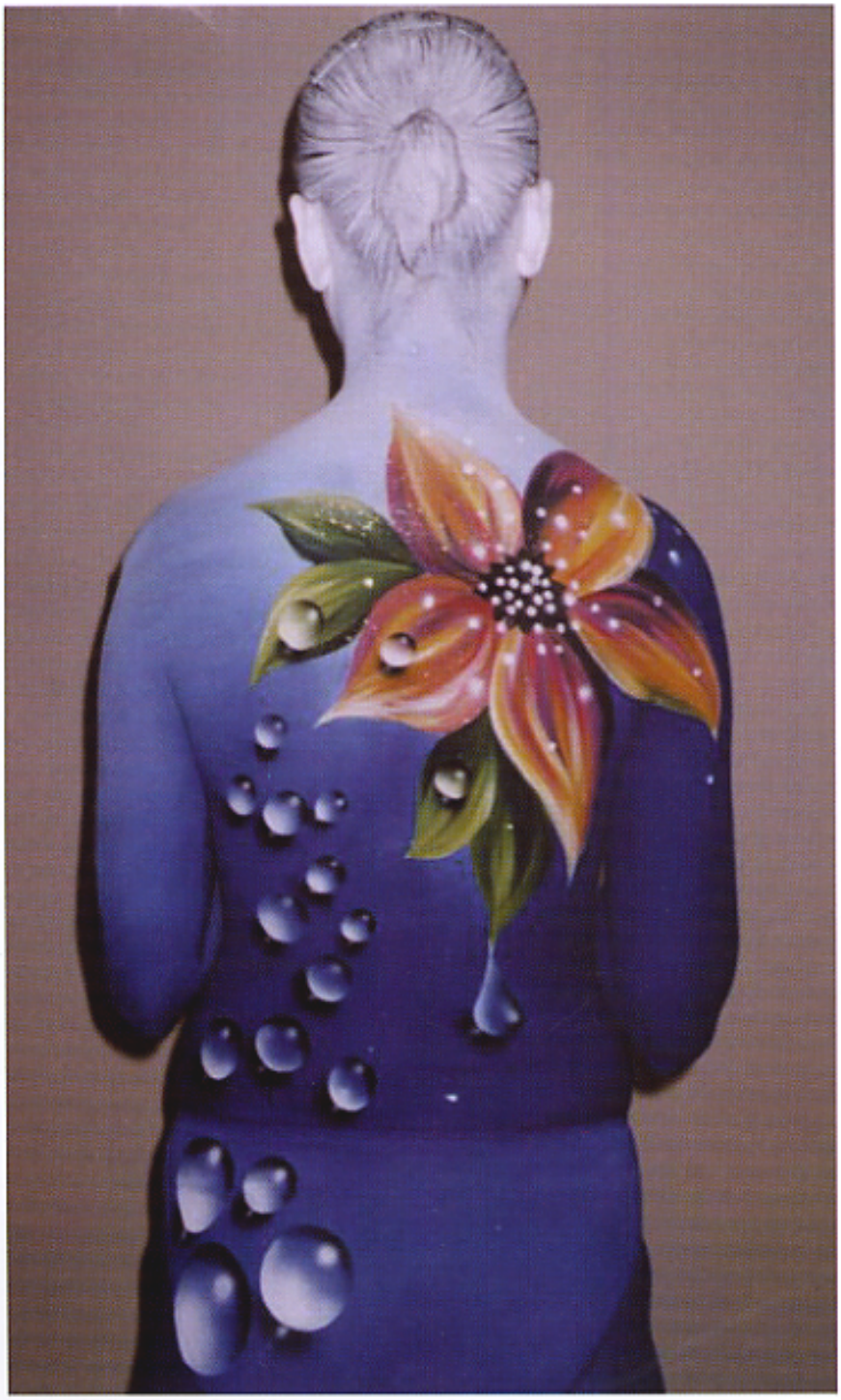
나. 작품 설명

작품 I은 꽃과 물방울의 이미지를 명암의 표현으로 인체에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한색계열의 색과 흰색을 이용하여 바디에 에어브러시로 그라데이션한다. 꽃은 회화적인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크게 표현해 준다. 물방울의 형태를 다양하게 그린 후 스케치한 모양대로 스텐실 본을 뜬다. 물방울 형태 하나하나의 세밀한 명암을 이해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본뜬 스텐실을 바디에 대고 밝은 색을 에어브러싱 한다. 그다음 어두운 색을 빛이 닿는 부위에 에어브러싱 한다. 어두운 색을 그림자 부위에 한 번 더 브러싱하여 입체감을 표현해 준다. 하이라이트를 밝은 색으로 에어브러싱 하여 사실감을 극대화 한다. 꽃잎 위에 있는 물방울표현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해 준다. 꽃술 부분에는 에어브러시를 이용 점을 표현하듯이 브러싱한다. 스텐실을 이용하여 빛에 투영된 물방울의 이미지를 사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다. 스텐실 기법



라. 작품 Ⅰ



<작품 Ⅰ> 자연의 이미지를 꽃과 물방울로 표현한 작품

2) 작품 Ⅱ

가. 주제 : 우주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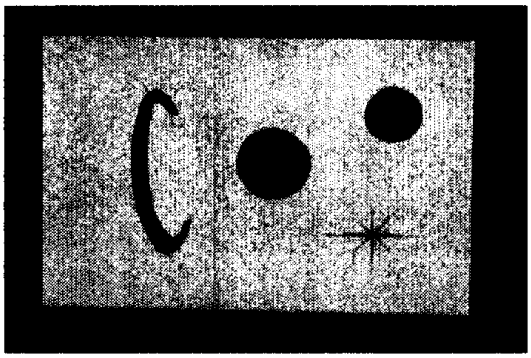
나. 작품 설명

작품 Ⅱ는 아름다운 우주의 이미지를 환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같은 효과를 내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나 에어브러시를 사용하면 그라데이션 시키는 일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한번의 움직임만으로 아름다운 컬러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에어브러시바디페인팅에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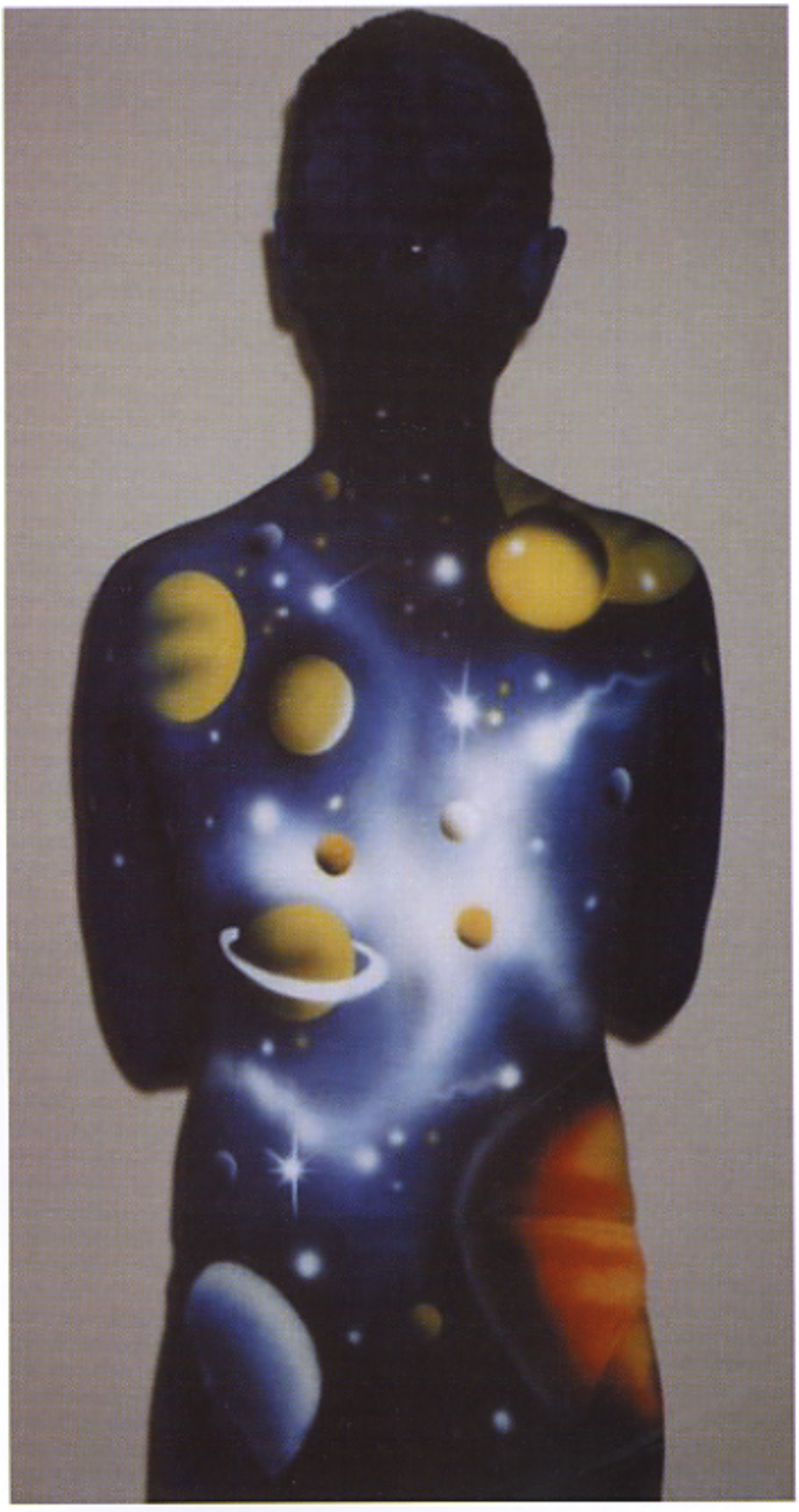
가능한 한 많은 밝고 어두운 컬러들 사이의 미세한 변화를 느끼게 될 때만이 완벽한 페인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크기의 원형 자를 이용하여 별들을 표현하였으며 아래의 스텐실을 이용하여 반짝이는 이미지와 토성의 띠를 표현하였다. 가운데 밝고 어두운 부분은 자유로운 브러싱의 강약으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태양을 중심으로 명암을 표현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다. 스텐실 기법



라. 작품 Ⅱ



<작품 Ⅱ> 우주의 이미지를 환상적으로 표현한 작품

3) 작품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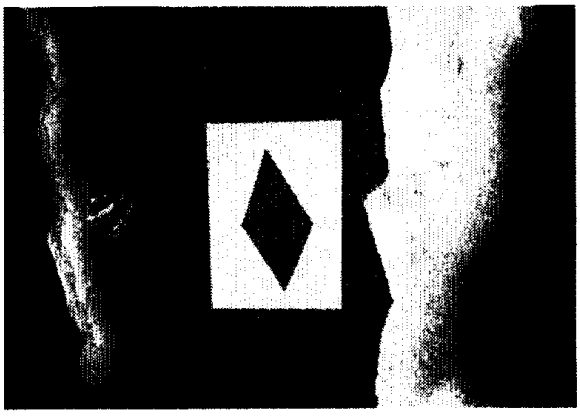
가. 주제 : 차가운 이미지

나. 작품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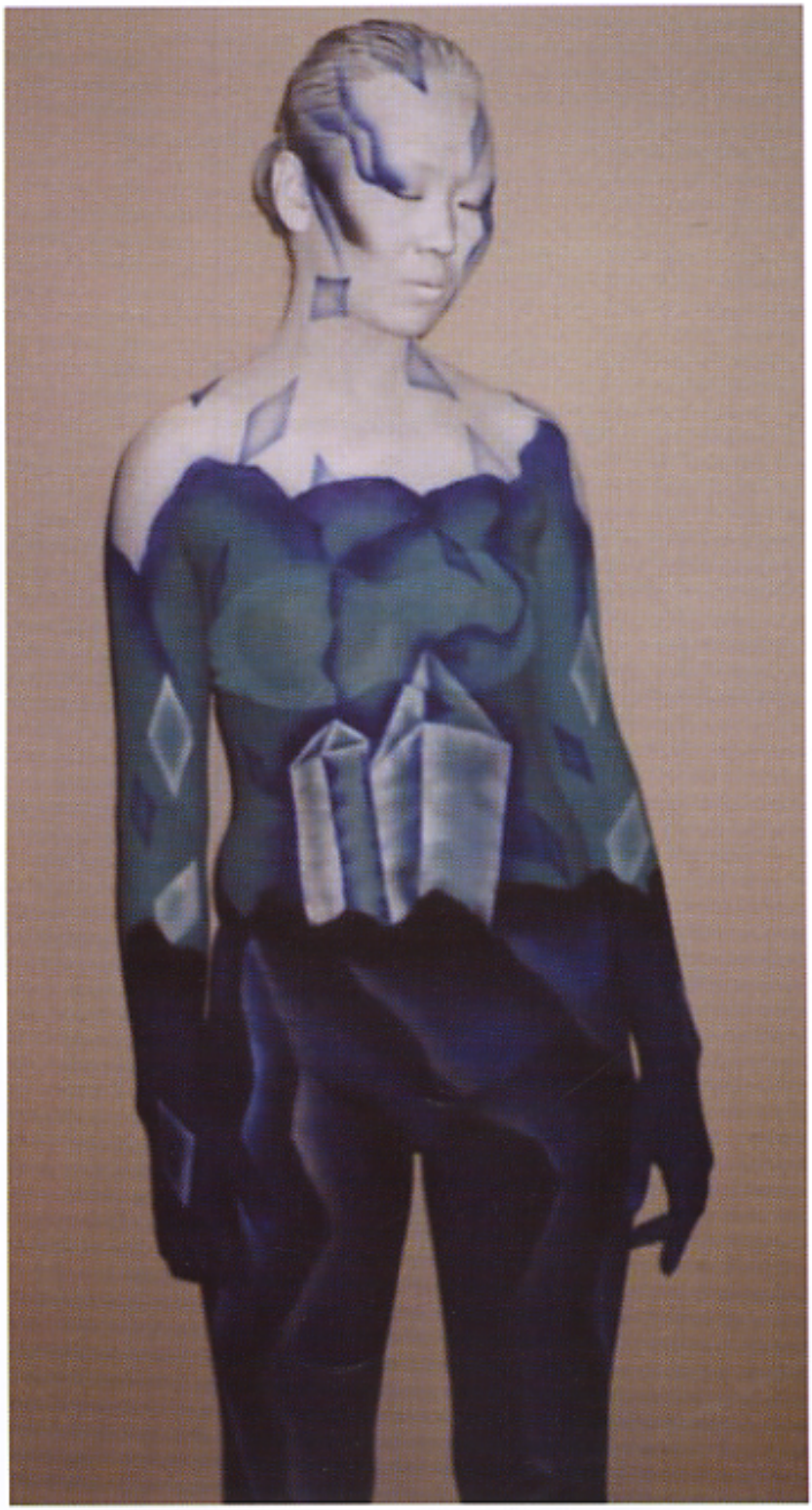
우리가 그래픽적인 것에서의 에어브러시 테크닉이라고 알고 있는 스텐실과 마스크는 인체와 같은 3차원적인 모양에서 훨씬 더 복잡하다. 몸의 곡선이나 주름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피부에 사용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작품 Ⅲ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스텐실과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작품이다. 먼저 흰색과 하늘색과 파랑색의 경계를 나누어 채색한다. 각 경계부분에 종이를 자유스럽게 손으로 찢어서 생기는 선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마스킹하고 한 톤 어두운 색으로 에어브러싱한다. 그렇게 하면 경계부분은 진해지며 자연스러우면서 강한 느낌의 선 이미지와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낼 수 있다. 얼굴부분에도 선적인 이미지를 표현해 준다.

중앙에 얼음의 이미지는 회화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해 준다. 다이아몬드 형태의 스텐실을 이용 에어브러싱하여 주제의 이미지를 보조해 준다.

다. 스텐실 기법



라. 작품 Ⅲ



<작품 Ⅲ> 차가운 얼음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

4) 작품 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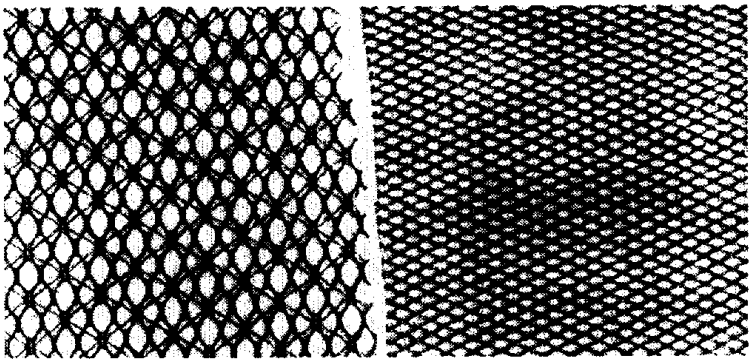
가. 주제 : 결 무늬 이미지

나. 작품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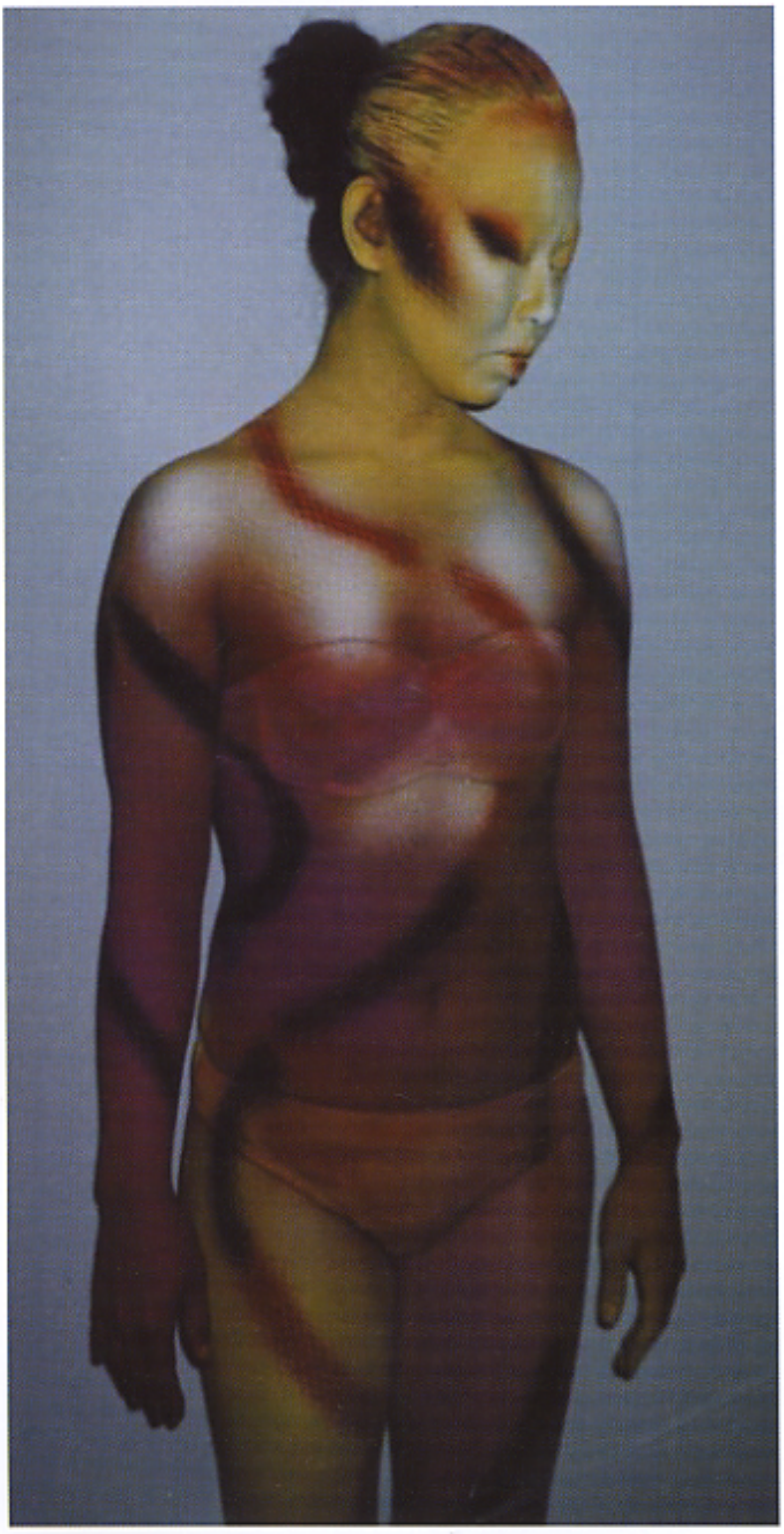
작품 Ⅳ는 결 무늬(철망, 어망, 스타킹, 레이스 등) 모양의 스텐실을 이용한 바디페인팅으로 결 무늬를 바디에 밀착시키고 그 위에 에어브러싱하면 다양한 형태의 결 무늬 디자인을 얻을 수 있다. 바탕색을 에어브러시를 이용하여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킨 후 결 무늬 스텐실을 이용하여 진하거나 밝은 색으로 사용하여 에어브러싱 한다. 바탕색이 진하면 밝은 색을 사용하여 브러싱하고 반대로 바탕색이 밝으면 어두운 색을 사용해야 뚜렷한 결 무늬를 얻을 수 있다. 뱀의 표피문양 표현에 응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81>참고

얼굴에서는 이마와 눈과 볼, 입술부분에 붉은 색으로 그라데이션 한 후 결 무늬스텐실을 대고 한톤 어두운 색으로 에어브러싱 해 얼굴의 입체감을 표현 한다.

다. 스텐실 기법



라. 작품 Ⅳ



<작품 Ⅳ> 결 무늬 이미지를 이용해 표현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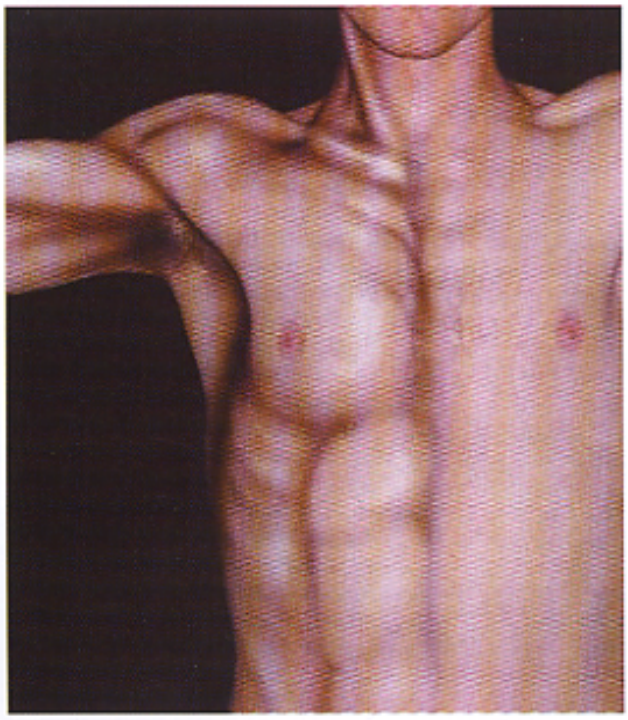
5) 작품 V

가. 주제 : 명암의 이미지

나. 작품 설명

작품 V는 명암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으로 인체의 근육에 에어브러시를 이용하여 명암을 표현해 줌으로써 밋밋한 근육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무대 공연을 위한 메이크업은 우리가 평소에 매일 하는 메이크업처럼 의 겉모습이나 얼굴에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기게 하는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것은 바디 페인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밝거나 어두운 색상에 의해 다른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 내거나 새로운 형태를 강조하기도 한다.

다. 작품 V



<작품 5> 명암을 이용하여 근육을
강조한 작품

Ⅵ. 결 론

인류의 기원에 있어서 미의 형태는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체를 대상으로 내적, 외적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바디페인팅은 인체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 올리며, 다양한 소재로 인체를 아름답게 표현하며 또한, 하나의 조형물로 간주하여 예술의 장르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본 연구는 바디페인팅의 여러 표현기법 중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의 표현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대개는 물감을 붓에 묻혀 그리는 바디페인팅을 많이 생각하지만 요즘은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 또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에어브러시로 작업하게 될 때의 장점을 보면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붓 터치와는 다른 자로 잰 듯한 깔끔한 처리와 부드러운 음영(陰影)과 투명감 있는 색조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섬세한 선의 표현, 매끄러운 그라데이션(gradation), 명암의 대비(contrast), 작업 시간의 단축과 많은 양의 작업도 손으로 하던 페인팅보다 더 쉽고 많이 해 낼 수 있다는 점과 동일한 그림을 여러 명을 할 경우 손쉽게 할 수 있는 점 등이 에어브러시 표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바디페인팅에 에어브러시를 사용해오고 있다. 에어브러시로 그냥 분사해서 색을 입히기도 하고 원하는 모양을 스텐실 하여 그것을 대고 그 위에 색을 입혀 원하는 모양의 페인팅을 할 수도 있다. 에어브러시 바디페인팅은 옷과 같은 질감표현을 하는 페인팅 시 아주 유리하다.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옷의 주름을 붓 터치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또 어떤 회사의 제품 홍보 이벤트에 페인팅을 할 경우 그 제품의 로고를 스텐실을 이용해 그대로 표현 할 수 있다. 이처럼 바디페인팅에서의 표현효과는 다루는 기구, 재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전달 내용에 알맞은 적절한 기구와 재료를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표현기법을 개척할 수 있고 따라서 독창적인 새로운 표현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문화, 조형예술분야에서는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차원의 사고와 이상을 추구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도입하는 충격적 영향을 계속해서 주어왔다. 조형과정에서는 욕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능에 입각하여 상상되는 모양에 대하여 고찰하고 소재의 과정에서는 재료와 기술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조형예술 분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바디페인팅은 재료와 기구를 더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필요로 하는 예술 활동이며 창조되어지는 과정에서 독특하고 신선한 표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항상 발전을 거듭하는 재료 및 기구의 사용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기법이 발달한 것도 물질가공의 발달 때문인 것으로 보아 현대의 비교적 새로운 도구인 에어브러시는 앞으로 수준 높은 조형예술을 창작하는데 표현상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졌다고 본다.

현재의 에어브러시는 바디페인팅에서 뿐만 아니라 네일 아트, 메이크업에서도 점차 그 위치를 충분히 확립해 나가고 있다. 앞서 본 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에어브러시는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여 섬세하고 자유로운 기구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에어브러시를 적

절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술과 숙련이 요구되므로 일단 방법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 독특한 표현이 가능하여 섬세하고 자유로운 표현 도구로써 미용예술분야에 많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이 분야에 관한 서적 및 연구 자료가 많이 부족하여 참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자의 경험과 선배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조언을 참고로 바디페인팅을 정리해 보았다. 예술작품으로서의 표현은 다양하고 독창적이지만 기록으로 정리된 문헌은 많지 않았으며, 바디페인팅을 미술 분야에 대입하여 폭 넓게 연구하려 하였으나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인체는 평면적인 일반 미술작품과는 달리 곡선과 면, 골격 이루어진 입체적인 인체 위에 페인팅을 하기 때문에 인체의 해부학적 이해와 골격구조, 피부의 특성 등에 대한 세밀한 부분까지 인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아티스트는 학술적 이론과 기술적 확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를 계기로 에어브러시를 사용해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바디페인팅 분야 발전과 다양하고 독창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1999.

김영희 외6인, 『토털 메이크업』, 정문각, 2001.

강근영 외4인, 『색채와 뷰티코디네이션』, 고문사, 2001.

토므즈 카티스, 크리스토퍼 핸트, 『에어브러시 북』, 태학원, 1985.

김상원, 『디자인을 위한 피스실무』, 명지출판사, 1986.

김공웅, 『에어브러시 일러스트레이션』, 조형사, 1988.

논문

박동교, "Air Brush를 이용한 漆工藝 表現技法 硏究",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박정호, "Air Brush 表現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박혜선, "조선시대 민화의 문자도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외국문헌

Jos Brands, 『Air Brush and Makeup』, Kryolan, 1997.

『Body Paint』 Magazine, vol.02, 1999.

Patrick Leis, 『Body Paint』, Tellus, 1997.

Karl Groning, 『Decorated Skin』, Thames & Hudson, 2001.

기타

http://www.kpshop.co.kr

http://www.kryolan.co.kr

http://www.world body painting festival. com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Body Painting Using an Air Brush

Lee, Jae Hyung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Human beings can perceive consciously themselves, and in this process they are able to personally recognize their own bodies. Thus, special emphasis was put on the skin, a surface which separates themselves from the outer world, and all sorts of people use skin as a surface for artistic expression, also trying to express themselves as an ornament to convey wide range of various meanings.

The body painting, a form of such expressions, shows an inner relation of human beings, while meaning their sense of social culture and creativity.

The body painting originated in this way has been used to express a society's cultural characteristics for thousands of years. The ornamentation and painting of human body was first begun by the traditional groups such as prehistoric tribes or aborigines in New Zealand, Australia, or America. They used this technique to emphasize and ornament parts of human body during their ritual event.

The body painting in our culture, however, has no relation with the

ritual symbolism. Rather, it may be regarded closer to rendering the interesting and creative shapes and colors to the human body in order to emphasize body language and impressive colors.

It is important to decide the model's look in its final design because the outward appearance of our body is a surface on which we work. Therefore, the human body should not be a two-dimensional surface. If we do not know the shapes of our body properly, it cannot be considered a body painting.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each viewer interprets the meaning on their own from the change of facial expression, subtle movements, and attitudes of body. Conscious emphasis of these body languages and ornamentation can make a strong impression. Harmonizing each of different factors for example, color, line, shape, power of express, lighting, etc. may endow creativity with lots of possibilities.

The body painting is a composite art done to the whole body from head to toe, and a formative art to express the human body composed of the most beautiful line and surface unparalleled to any work of art, as well as a field of art in which makeup artists can maximize their creative and originative world of work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ities.

In producing these works of art, a kind of technique is required. That is, the body painting has various techniques of expression as a plastic formative art created purely by manual work.

The history of air brush image is as long as that of painting. A spray picture which was assumed as a prehistoric graffito using an

instrument with breathing hole was found within the cave. Air brush was invented by Charles Burdick a water color painter who had sought after a more rapid and effective way in working on the skin in 1893. And in turning into this century, its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much more while doing photo works. Then, air brush has gained great popularity in such fields as pop art, surrealism, photo realism, and hyper realism.

Air brush is one of very frequently used techniques, because it can work on the surface of various materials. Air brush makeup kits have particular advantages. They can more simply express gradual change of color and spray dyes on different materials without difficulty than any other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s origin, type per period, and various techniques of expression of body painting which is newly being developed in the field of formative art, based on which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air brush, and the use of air brush instruments were studied to present diverse and creative techniques of expression, to explore various expressions of body painting, and even to develop it into works of art.

Though the work was done with special air brush instruments, often other makeup techniques were used at the same time in the prior or in the final stage.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most effective makeup technique in expressing one's thought. But after being acquainted with air brush, one will surely prefer air brush to any other instruments. In other words, when makeup artists produce the works of body painting, air brush will offer them with more freedom of expression.